警告

此小說何許人著述不知然而都是誕荒食言無根之說
故見者無味不費長歎虛言傳講故易啟本世難蒙
上入闖則即為押収矣呼主深〻藏〻毋為漏傳事

癸丑元月 日 書

옥누몽 권지육

차시의셜봉의말노ᄎᆞ자장즁이뒤ᄎᆞᄌᆞᆯ내ᄒᆞ
ᄉᆞ뒤옷ᄃᆞᆯ왈홍장즁의보검이벗치나퇴ᄉᆞ난조흔
달왈돌을찻나이다ᄉᆞᄉᆞ뒤왈그러ᄒᆞ여변ᄒᆞᆫ일
진신상의는천빅이아되나지흠것모줄이흉연ᄒᆞ
ᄃᆞ평신이현황ᄒᆞ여다시칼을보며으히ᄌᆞ졍
신에ᄭᆡ닷ᄒᆞ여진다ᄒᆞᄃᆞ옷더타이의ᄎᆞ욕경을
오화사ᄲᅡ청총장즁을삼ᄃᆞ홍혼달노옥ᄉᆞᄲᅡ
빅호장즁을삼ᄋᆞᄉᆞ야취ᄎᆞ젼부즐격장즁을
삼으며원ᄉᆔ홍낭을공즁의ᄂᆞ뉘ᄒᆞ여젼연ᄒᆞ니
다시이우니깃불ᄉᆡᆼ아니라낫ᄉᆡ변ᄌᆞ복을의논ᄒᆞ
ᄃᆞ밤이변ᄃᆞ외을의ᄎᆞᄌᆞ나홍낭의빈졉

텬지혜와여신현훙병에응샹렴하ᄂᆞᆫ뒤잠
군장셔그녀져물아져못ᄒᆞᆫ원쉬쇼ᄒᆞᆫ외뫼시렴
편여얼호거셕울낫토지안크요ᄒᆞᆫ평키ᄂᆞᆫ여얼
호욱회혐드언ᄃᆞᆫ일호가탐지아녀군뵨이엄쇽
텨더뫄이시나타이어열즐의디실의와홍낭
와계봄볏ᄂᆞᆫ텨ᄃᆞᆫ녀젹연이등젼이연ᄂᆞᆫ겨타쇽
몬노자다텨부ᄃᆞᆫ내스줄이뒤쌀훈징즁이슉하노
줄노나가나감히못젹못텨나이다나탁이그마다
날알ᄃᆞ톄음운어히영셔텨여ᄃᆞᆫ싱각ᄒᆞᆫ니데로
되볼ᄂᆞᆫ여욀니젹울져심으로뎌졈ᄃᆞᆫ엿거ᄂᆞᆯ
이톄우ᄅᆞ이도즁즁니이ᄂᆞᆫ날쑬엄숙이니가에
다기맛당이벽울동의가도ᄂᆞᆫ울즁이ᄃᆞ마ᄃᆞᆫ곳

곳의가주완병을쳥ᄒᆞ되타쳐ᄂᆞᆫ블이셔도ᄃᆡ
나장ᄒᆡ일인이웅셩뫨뒤왕은ᄌᆞᆫ시ᄇᆡ치발을오초
셔ᄂᆞᆫ장이일인을쳥거ᄒᆡ오ᄅᆡ니이ᄂᆞᆫ은남국
출ᄒᆞᆼ대왕이화쳔하무상으로ᄃᆡ젹ᄒᆡ더업
ᄂᆞᆫ또출ᄒᆞᆼ뒤왕의일ᄃᆡᄉᆞᄂᆞᆫ오이ᄉᆞ셔쌍칭올쓰혀
발복ᄂᆞᆫ양지용이타고뒤왕이셤심이무ᄐᆡᆼᄒᆞᆫ여예불
이젹으변질더오지아닐가줄나이다나타여더
희ᄒᆞ여이셔쳐단이벼길더변족이며리을쓰ᄂᆞᆫ
즘은축심승올셧ᄂᆞᆫ출ᄒᆞᆼᄌᆞᆫ을칙쳐가ᄒᆞ여뒤
장쳘무탕아발도낭장을블너약슈올더얀
이ᄃᆡ화쳔은ᄌᆞᆼ모올단ᄂᆞᆫ이ᄆᆞᆺᄂᆞᆫ병쳔의셔도젼
출나경이ᄒᆡ나져발나낭장에쳥병출나라

일ᄂ은 홍슌미 원슈거ᄃ 왈 나탄연 일ᄂ 홍무를
닷ᄃ 나지 아니즐너 반다시 타쳐의 주완ᄒ러 타가 ᄢ너이
셕을 타되을 동울 ᄎᆔ즐 ᄢ로 겔가 즐나아다 원슈
왈 ᄡᆞᆫ 홍동ᄒᆞᆨ이 홍쥬 쳥치와 다ᄃ니 ᄡᆞᆫ일 주ᄎᆔᄃ
쳐헌ᄎ 일 부당랑의 ᄡᆞᆫ 부ᄡᆞᄃ타 장ᄌ은 무삼 뵤
례 잇난 노 홍순뷔가 ᄡᆞᆫ너ᄃ 왈 ᄡᆞᆫ진 쳬장을 본온ᄃᆞᆨ
쇄ᄡᆞᆫ 운텬 녑셔ᄂ 슉이 ᄢ쉬을 지여ᄎ 흘변 ᄡᆞᆺ
당ᄒᆞᆯ가 흘나여다 원쉬 기거왈 니오리 큰무의 죄
곤허나 낭은 날울 되신 흘여 평울 하져ᄅ을 앗
거지ᄡᆞᆯ 나ᄒᆞᆫᄃ이 날 붓허신게 블평다 ᄒᆞᆫᄃ 장을
지우ᄃ 누어한가 이잇서ᄅ 셤ᄒᆞᆫ다 흘ᄃ타 ᄒᆞ야의 ᄒᆞᆫ
낭이 솔야 ᄒᆞ리ᄅ 제ᄅ을 이ᄅᄃ면 신의 홍순ᄇ 원슈

줄이 간 갓치 ᄯᅡᆫ 뼝을 그ᄒᆞᆫ을 너어 번ᄃᆡ 서나 ᄐᆡ다.
부동ᄒᆞ여 반섬을 두ᄭᅴ라 그러ᄒᆞ자 못ᄒᆞ더니 ᄯᅡᆫ
병라 갓치 버히더라 손이 쳐 뜨ᄒᆞᆫ 생게여 오ᄂᆞᆯ 내 서간
의 숨어ᄭᅥᆫ 손탐이라 장즈이 슉ᄒᆞ의 일러 ᄎᆡᆨ동이
엽 술 ᄎᆡᆨ의ᄂᆞᆫ 감언으로 달ᄂᆡ여 ᄯᅡᆫ 왕을 ᄌᆞᄌᆞ 찻다가
이 ᄯᅢ 즉 줄이 ᄯᅡᆫ으므로 이러틋 놉은 손탐을 장ᄭᅡ ᄒᆞᄎᆡ
동으로 시비를 너니 나이 칠십 지년이라 ᄇᆡᆨ발이 성ᄒᆞᆫ
ᄒᆡ거늘 이갓치 ᄯᅡᆫ 모를 너 밧비 ᄌᆞᆨ이 손서ᄒᆞ여 ᄂᆡ던여
심 벼물 ᄌᆞᆫ을 너 ᄒᆞᆷ손 뷔이고 들여 장안을 명 ᄇᆞᆯ이
더 보내 갈을 ᄲᆡ여 들고 호령왈 노줄이 갓ᄐᆡ 부ᄒᆡ
을 너 장전의 손의 실이 올 너 불러 살 줄의서 ᄉᆞᆯ솔
그 ᄯᆞᆼ 무릅을 ᄭᅮᆯ어ᄂᆞᆫ 한려라 손부의 병으로 다려와 시니 어,

자옹셔치못ᄒᆞ리라ᄒᆞ고야쳐ᄃᆞ려옥션계여왈장군
이ᄉᆞ부의병을ᄉᆡᆼ각ᄒᆞ면반왕의기령이후ᄒᆞ려거ᄂᆞᆯ
바라ᄂᆞᆫ병긴의두항ᄒᆞᆷ을엇나ᄂᆞ니ᄂᆞᆫ분ᄒᆡ반국셩이라
반왕을위ᄒᆞ여왓다가도로혀ᄇᆡᆼ인을ᄒᆡ치ᄆᆞᆫ의이
니ᄂᆞᆫ이태산즁의숨어부신부의편ᄎᆞᆫ의ᄒᆡ하되겨
이ᄯᅥ리라ᄒᆞᆯᄉᆞ쳐ᄌᆞᆫ언을듯고발연이ᄃᆞ려쳐ᄇᆡ갈
노ᄒᆞᆫ야쳐을버히려ᄒᆞᆫ대좌우졔장이말녀ᄒᆞᆫᄃᆞᄉᆞ
야쳐을븟들어밧그로ᄂᆡ여보ᄂᆡ니ᄉᆞ야쳐ᄇᆡᆺ기나와
본을이기지못ᄒᆞ여ᄒᆞᆼᄉᆞᄇᆡ을ᄯᅥ져왈ᄂᆡ놈이반로
져을위ᄒᆞ여ᄯᅩᄃᆞ려네잇거ᄂᆞᆯ이졔좀ᄎᆡ고잇다고방
ᄒᆞᆯᄊᆡ이갓ᄒᆞ니게여ᄎᆡ차미그욕뵐감ᄯᅩᄒᆞ려오ᄅᆞᆯ
ᄂᆡ분ᄀᆡ이ᄎᆡ도ᄂᆞᆫᄒᆞᆫ졸이모ᄃᆞ텨욕ᄒᆞ며왈ᄒᆞᆫ

장군이일시결을참지못셩ᄀᆞ롬이로곰
눈ᄯᅳ니장군은다시ᄃᆞᆯ어가손쳐ᄅᆞᆯ드러스러지발나
군즁의ᄂᆞᆫ소ᄅᆡ업난ᄂᆡ라손아쳐양쳔탄식왈니네
리터럴이ᄇᆡᆨ발이여늘잘못ᄒᆞᆫ일업셔입외러ᄀᆡ
나는아희게벅구현챵ᄒᆡ리리오ᄂᆞᆫ여물ᄂᆞ블나ᄂᆞᆯ
눈여로챵ᄒᆡᄒᆡᄂᆞᆫ여ᄂᆡ밤든ᄌᆞ죽윌ᄒᆞ의바ᄅᆞ녀기
되ᄒᆞᆫ숨쉬지어탄식ᄒᆞ며ᄇᆞᆫ병잠아가ᄂᆞᆫ곳ᄉᆞᆯ지나가
나몸은ᄇᆞᆫ변이ᄃᆞ두손례를여옹을소져등의곰일손
다나믄손장군의다이되니장군은다시쳬도를ᄒᆞ되
손아쳐탄왈너의다동향소랑이ᄒᆞ심즉홈엿리
쇽졀이며오작일홈장군의혀는거동을보쇠
네이졔ᄂᆞᄒᆞᆼ으로가ᄒᆞᄒᆞ니너의조일쳬이도ᄇᆡᆼ듕라

오날은소횡변손즁엇시나ᄯᅢ깃쾌이져라가는즁
장군의모질손의내려넘는칼치되니엇지가
반알ᄃᆞ제로차이쇄토연화의칼을빼여한줄
의번가슬온에노흐며일너보내여이길노바로
셩을너ᄂᆡ다파나라내호헌던거로뱡줄ᄃᆞ쳐ᄒᆞᆯ
노화ᄂᆞᆫ뱅어갑은가ᄉᆞᆯ줄여는몰지여ᄂᆞᆯ광군
이어려조가시떠흔나니가손아ᄒᆞᆫᄂᆞᆯ이굿세번
소즐내동몸밧쳐온벽헌데가날을게ᄯᅡᄒᆡᄒᆞ
ᄃᆞ시안삼경의발을쓸ᄃᆞ가ᄲᅡ네동무으로나가며
ᄯᅮᆯ다가속몸려막려줄혼야쳐당활비이쥐쳑후
둥파가노파줄ᄃᆞ동몸을나월셕을ᄯᅱ여숙쥐을
가너니길가의반병둑칠인이반져기하ᄒᆞ월엇
괴이쾌야오시나가손야쳐발을잡ᄃᆞ몬

발되뒤을통문을맛ᄎᆞ아괴아니ᄒᆞ여뎡으로두상
병빈줄이변괸의새ᄉᆞᆫ야로죽ᄒᆞ여와울ᄇᆡ쳔
손연을ᄒᆞ고ᄒᆞᆫ손쟝군의운더으로손라도빙을엿
나이더ᄒᆞ거늘쳘부탐이국쳘을물운ᄃᆡ십여인
빈변이일쳬이ᄉᆞᆯ에고ᄒᆞ더통장군은한ᄎᆞᆨ현ᄇᆞᆯ소
ᄒᆡ잔ᄒᆡ러너다소지들이강손현부커라ᄒᆞ여부당이
죽이져ᄒᆞ는거ᄉᆞᆯ손장군이빌여다가상제ᄒᆞ여홍
장군이갈노손쟝군을죽이려ᄒᆞ든일쟝군ᄒᆞᆫ손을
셜파ᄒᆞ물넘지즘ᄒᆡ의들을결박ᄒᆞ게ᄒᆞ고연ᄒᆞ여쥬ᄅᆞᆯ
산으로ᄒᆞ가ᄒᆡ를곡물ᄒᆞ고변이가치의고잇는장수
울빈ᄎᆞᆯ여근즁의두변ᄒᆞᆫ용장군리당의잇셔나우리
을위ᄒᆞ여흉심으로도을가ᄒᆞᄂᆞ니다쳘부

탐이 쳥운남방주의왈 이엇제 패ᄒᆞ고 아내물얼
나오싱여 인ᄂᆡ 일시의 몸을 이러ᄃᆞ 왈이 느 소제를
의목도해운비와 ᄲᅡᆫ일제교다 대변순장군의 거셕
을 보아 알니이다 운은 현탈식다 가인 ᄐᆡᆯ은 불이
연속줄여 홍장군을 한해 ᄂᆡ 휼줄 면심중 물모
로쾨이 가아 발되왈 저 금순장군이 어대잇는다 면ᄉᆡ
의쵸대 ᄲᅡᆫ병이와 ᄃᆞ왈 저 금순장군이 ᄭᅩᆯ ᄲᅡ려거놀에
동주를 저나가며 소제를 웨의 ᄊᆞᆺ는계 이실가 급
히 ᄃᆞ러가 패ᄒᆞ 훈ᄂᆡ가 더이야 발대 철목담을 도과
보아 왈 우리 군중의 쟝쉬 적ᄃᆞ 순아쳐로 순을 ᄭᅮᆺᄎᆞ
도을 베ᄒᆞ니 ᄲᅡᆫ을 거시오 이 쉐병 진을 비반 허ᄃᆞ갈
진대 엇제 그 동평을 웃제 이니 리오 상방인이 져 운졍
지졍의 ᄃᆞᆯ시쳐 이얼거시오 거셕을 보ᄯᅵ ᄃᆞᆯ게 ᄂᆡ오

오미못팔가줄노라 쳘복탕이좀시ᄭ지이내존재
흥영이아 빌되 쟁을 줄ᄂ내려와ᄇ 왈내가셔동
쟁을살려리라 훌ᄃ주시ᄯᆞᆫ병을다리매ᄯᆞᆯ리고가
보내손야쳐 욕을 랑을 혁여 낭을 바라 쳐랑이가
거늘이 발되 급히 불너 왈 손장군은 별ᄀᆞ납
훈ᄇ너되을이심야의가 걷되 단거로 향을 여령
셕이심히로 청을 여뵈난노 손야쳐 ᄒᆞᆸ비을 장
ᄃ발을 너주ᄃ 길가의셔 거늘아 발되 왈 장군이
임의 운엄을 세우ᄃ 시셕을 무ᄅᆞᆸ쳐 홍진가온대ᄂ
로을 비상이 ᄒᆡ다가 엇지 셩순을ᄂ 복키을 누리지
안코 종룡이 ᄒᆡ훈여다시 산속을 차져ᄀ 겨ᄎ리최
편이 가난ᄂᆞ기와을 아져 못ᄒᆞ리로다 손야

흔노론야쳬옷ㄹ다시양쳐술이수비와이드며슨
야쳔ᄒᆞ거시란줄여잔울노그화허장탄줄더냐여
줄논물이나려강리저분울것꾀지못ᄒᆞ거늘아
발되물왈장군ᄒᆞ아우순조쳐허버뇌한난노도날
이흔견시셕가운ᄃᆡ넣어오조동헌못거지조흔벼
울날녀굴기는날이화엇과ᄲᅡ움의잇는법물형
형셩가울쾌이말을녀셔조ᄲᅡ움을거어자양너블
보이저양너즐난놉슨야ᄎᆡ이울갈벼갈을ᄲᅢ내여
쇽지되불밧복부신형졔은아희조ᄃᆞᄲᅡ현졔조울ᄲᅵᆺ
ᄃᆞ조ᄡᆞᆫ방조줄여손잡고이게울ᄃᆞ굴갓ᄎᆡ되니그ᄲᅡᆼ을
믈날울과악술여블져화여지장주허리오비ᄃᆞᆺ터
는그러ᄒᆡ나ᄆᆞᆺ치소부변을바다라순을여ᄂᆞᆫ감

ㄷ려려ᄃᆞᆫ려ᄃᆞᆫ일을올채ᄒᆞ화바리지못숙어
로밀을여동탄지연구려려을베지녀엇지ᄒᆞᆫ갓순의
갤이려오려녀분려붐이거지못ᄒᆞᆯ나아발리못왈
이인구주을쌱짓난로손아쳐한왈장준이라순의골ᄋᆞᆼ
국으로부르시ᄃᆞᆫ쳘장군은일ᄃᆡ로ᄂᆞᆯ빈나보래시너네
엇재을회을퇴이ᄃᆞᆫ쳐음의빅을도셔홍장군을보
내시녀그년손ᄃᆞᄅᆞᆫ을볼염녀ᄒᆞᆫ노장을오우이이
퇴여후준손즉려미잇거늘홀숙을파신병으로내
칠십노물이져을의거허여몸을잇기져안고의기퇴를
물무름鐵창뢰을베ᄃᆞᄃᆞ로을감숙ᄒᆞᆫ빼이엇져부
키의권젼을여나칙허네태오이쾨퇴와현숙쾨울다
밧매못하ᄢᅡ별목엽는원귀될번ᄒᆞᆯ너남왼숙뫼각

안숙배술노닌ᄅᆞᆯ녀가술가온대불량ᄒᆞᆫ바
음을강조지못ᄒᆞᆯ나ᄂᆞᆫ위장군은노광의일ᄂᆞᆫ줄웃
지이소서자시철부탕이온야쳐의거동을보ᄂᆞᆫ
그ᄆᆞᆯ을드르며진실노ᄒᆞᆫ통ᄒᆞᆫ달의소위절못ᄒᆞᆯ
바ᄡᆞᆫ즈슨야쳐의노ᄅᆞᆯ베그르지이넌듯ᄒᆞᆫ지라비
로소술을권ᄒᆞ여위졸욀장군의옹병으로여대
가변ᄒᆞᆫ념을일우지못ᄒᆞᆫ대오젹ᄢᅵ산중의ᄢᅵ
록다버ᄉᆞᆯ리ᄃᆡ분장부의쏫저이날가ᄋᆞᆯ노타ᄋᆞᆯ
야쳐소욀노뷔장군의죡의올이나나의도화가
는신쇄올가ᄌᆞᆼ이보순거두어회ᄒᆞ의두ᄃᆞ재ᄒᆞᆫ서
나노뷔벽슉롱진의두번ᄭᅦ웃친일을흰ᄒᆞ되
온쇄ᄅᆞᆯ부탕뷜엇지여ᄅᆞᆫᄒᆞᆫ화타ᄒᆞᆫ노랑욀

노뷔쳐음ᄉᆞ부병을바다만왕을구ᄒᆞ려왓다가
부상ᄒᆞᆫᄉᆞᄅᆞᆷ의간ᄶᅢ의숙아병걸의두향을ᄒᆞ엿다
가이져경을당ᄒᆞ니ᄒᆞᆫ번게웃부미오며서만왕
을ᄎᆞᆷ쳔ᄒᆞᄂᆞᆺ듯거ᄋᆞ물변쳐못ᄒᆞᆯᄲᅮᆫ아니라경
군은야쳐의ᄊᆞ움을알거니와만왕이엇지ᄒᆞᆫ남
ᄒᆞ대오이아니ᄒᆞ두번쳐회ᄒᆞ더ᄲᅵ잇실가ᄒᆞ나니일
죽이신후의ᄂᆞ라가병을숫쳐창법을시험ᄒᆞ랴ᄒᆞᆫ
법을강ᄒᆞ야ᄒᆞ여ᄂᆞᆫ생을맛쳐일이라ᄒᆞᆯ목ᄒᆞᆷ이
ᄯᆞᆯ을듯ᄀᆞᆫ손을잡아왈광ᄌᆞᆫ은의심치말지어다우
리대왕이져ᄅᆞᆯ을ᄉᆞ랑ᄒᆞ시ᄃᆞ도랑이ᄒᆞᆫ후ᄒᆞᆫᄉᆞ흔경
군의편협ᄒᆞ대ᄆᆡ영ᄉᆞ니장군은본이만주인이라ᄃᆡ
일ᄯᆞᆫ중부지을갓치구리ᄒᆡ여져아롱당제

아내려오을야져 철목탑을이우이보내소리
을가다듬어왈네흉장군의병을바다거꾸항복
즐메니장군은편시생각하되라 철목탑왈장군
의밝으미라울것도다비라연장군의항셔을외
섬즐엿더니이발이우럭국지간에소라장군은모혀지
발니혀ㄷ되손들니야쳐억소들펼날왜장군이여
흔하상란되즐니너서지감둔채안니뢰올다말덕왕
이회쳥하신후게축을쳥하되라을더라이의술을
나와대칙출내활명을던니업의손오경이제안구취순
어거ㄷ셔벽뻘이둥편의굽히더니남쟝이베주외
곤하여갑옷슬즐으로쟝충의수씃더니문득북
문밧게함성이뉘진을내치드러온니남경이대경

ᄒᆞ여곰히갑을입ᄂᆞᆫ삼군을ᄒᆞᆫ평ᄒᆞ여북문으로
가라ᄒᆞ니숀야쳐왈광ᄎᆞ은경동치발나홍광
군의병법이라장ᄎᆞᆺ남문을치려ᄒᆞ니본채ᄒᆡ
셩을ᄂᆡ여북문을방비키ᄒᆞ면가히ᄒᆞ리라헐복
랍이오히려잇지아니ᄒᆞ리ᄅᆞ손순졸정병을ᄂᆞᆫ화ᄇᆡᆨ
더니함셩의셔본의쇄키결ᄒᆞ니셔본을ᄲᅡᆺ으니숀야쳐
왈이도홍장군의병법이니장ᄎᆞᆺ동문을치려ᄒᆞᄂᆡ
니동문을ᄲᅡ앗고훨복랍이반신병외를너오히려
셔북문을ᄲᅡ앗더니셔북문은간평이ᄯᅢ로동남문
을곰히쳐초셩에펼쳐진동ᄒᆞᄂᆡ훨환이바회장
ᄒᆞᆫ홀이나려동문을쉬치ᄂᆡ평셰가광곱헌ᄀᆡ라
숀야쳐ᄯᆞᆯ이라연ᄒᆡ물보ᄂᆞᆫ곰히셔북문평병

울게두어 쳘목향은남궁을직희ᄒᆞ아발죠
눈동봉을직희ᄒᆡ남은군ᄉᆞ는셔북낭봉을방비ᄒᆞ
대훌연슌아쳐장을들고발뎨울나크게호통
ᄒᆞ내나는ᄃᆞ시북봉의이ᄅᆞ러숙봉장을주이ᄃᆞ몸을
통리ᄒᆞ니ᄇᆡᆨ병이일시의남향으로살ᄀᆞᆺ치ᄂᆡ려
장이벽녁북을두르우ᄃᆡ거쳐소리ᄒᆞ여외ᄅᆞ되
ᄇᆡᆼ션봉장군은여겨잇노라쳘목향은부졀업
시남문을직회리ᄂᆞ나흔내뒤의소ᄅᆡ쇼쳔리
을거나퇴시살을주내슌아쳐져풀을여러번변을
ᄣᅡ호며ᄂᆞᆫ즈로바ᄃᆞᆯ이일뢰군을거나퇴뢰봉을둘엽
을ᄯᅥ동남낭봉의로향이꼿지어ᄂᆞ쥴ᄃᆞ쳘아냐광
내숙쟝이대황낭을여두ᄭᅵ울조리ᄒᆞ지못ᄒᆞ야거늘슌

호며그레한바뒤근황의얄라드려져도려줄나안쳐
웃은빨을쳐쳐다퇴나배볼원수의재곤이오
상나밧시비도빙줄라낭정이헐일엉시동몽을
열근도빙줄여선병을보젼줄여책복숑으
줄드러가취진연병을졈ᄃᆞᆫ줄나졀반이나상줄엿
더라이발되진한왈오날쳐혀본나여쳐하장군의
빨을동지하엿나가이화을당ᄒᆞ나무상오ᄎᆞᄎᆞ로장군을보
배뒤왕대오시변백오리본연하와각절그려줄나절
무량이굽히못ᄒᆞ리올우리낭인이제왕의병으로적
희다가숀췌간갓재당ᄒᆞᆯ거시나장군의숀의칭찬
도왕손을위ᄒᆞ미오나의뭇재안이ᄒᆞᆷ으로엿시왕손을위
줄미라매음연추일조라조미엉가을이갓쳐

자검을여여ᄂᆞᆫ의편셩을일ᄂᆡ고니이여리향
일ᄭᆡᆺ던비리쇼연화의칼을ᄲᅡ혀더지니아발뎌
ᄉᆞ례ᄒᆞᆯ지아ᄂᆞᆫ늣지아ᄂᆞᆫ표숙이오ᄯᅢ아ᄂᆞᆫ도포숙
이와ᄒᆞ여더라이ᄯᅢ낭ᄒᆡᆼ쇠ᄃᆡ을동을ᄆᆡᄂᆞᆫ어ᄂᆞᆫ데더
군이동즁의인물을ᄅᆞ크게호케ᄒᆞ며향ᄂᆞᆫ울안목굴
너소ᄂᆞᆫ위흉ᄉᆞ마다쳐ᄒᆞᆯ중일승젼ᄒᆞ여본장ᄂᆞᆫ의쳐
음ᄋᆞᆫ병ᄒᆞ여시와장군의ᄂᆡ세운아ᄅᆞᆺ시나엇지근운
ᄒᆞᆫ거상라편쇄더라을알앗시리오ᄂᆞᆯ아ᄎᆡ소일
혀울동어ᄂᆞᆫ본화ᄂᆡ소장의츙단이라칼ᄲᅡ다ᄀᆞ결
외ᄂᆞᆯ색을바라ᄂᆡ도방을ᄃᆡᄋᆞᆫ나ᄂᆞᆫ눈물을흘니ᄆᆡ
일이나ᄂᆞᆫ한식을ᄂᆞᆫ여기ᄂᆡ도방을ᄂᆞᆫ본ᄉᆡᆼ을지으며굴
다가쳘목탑의실을ᄲᅡ으려니츄던칼노구을ᄀᆡᆷ

나나히 병욱흘너 쥔셩이 즐곡흘너 거별이 즁군
ᄒᆞ기을 졀져 아날가 흘나이라나 탁이다 시병ᄎᆞ
빅히올 촉ᄂᆡ 빈ᄂᆞ 벼결을 받쳐내 간졀이 쳥흘
디왕이아 야호흘 허탁허나 왼이 일ᄂᆡ 잇셔본거
섬송쇠의 간셕이 찰쇠 허ᄂᆡ 무ᄂᆡ 정볼흘 ㄹ즁ᄯᅢ
현셜흠이 낭ᄒᆞᆫ 즁게 녕셔 황상즁왼의 나ᄌᆞ볼
을 볼 불을 둘 단흘너 즁화 볼물 구경ᄒᆞᆯ 뜻재
잇시나 만나 남쥔의 복룩을 바라보ᄂᆡ 녀ᄌᆞᆫ 욱ᄒᆞᆫ이
남관와라 르물 ᄒᆞᆫ흘ᄯᅢ 나 복왕이 나탁의 청을 듯즐
낭ᄒᆡ 만수변으로 가물 ㄹ즐 갈면이 셩쥔을 ㄹ줄 ㄹ즁스
ᄒᆞ나 탁이 볼쥭의 왼 보나 채을 둥을 일고 젤북
동의 옹거허여시나 탁이 대전흘ᄯᅥ 낭광

을차진뎌와 뇌뎌일난 장군이 뇐몸 벗거
뎌좌 줄나 다나 하이 밧비 난 장을 불너 위로 줄
나 망장이 몸을 메여 축으로 쳥한다 나 하이란
샤드 위구로 허여 왈 이 곤다라 인의 운쉬다 이 엇지 장
군등의 불너 헌비리 노인을 여병 진홍평을 물
을뤼 낭장이 뢰강드허드 홍운탈의 거톄와 장낙
이안 원슈의 승허다 굴니 홍운왕이 본년 일니미
국져 졔여 슈나 일흔 하호화 북군 톄라 흐더라
홍누왕 환술 강신장 홍수바 변진차 만병
화시 홍누리 왕일 왈 대왕의 일흔 화둥 불일네
뇌회 북군 드 병진을 너 옥을 면 들 일어 뎌 왕은 병
일로 젼둘 소쳐 헤려다 이 쉬 홍낭이 연 소낙 결 노연

일홍욱시셕의침식이블령ᄒᆞ여신거블안ᄒᆞᆯ
더니일ᄂᆞᆫ원쉬홍윤이장즁의블너군복을
뇌노ᄒᆞᆯ셰그옥안이ᄎᆞ뢰ᄅᆞ거은이ᄂᆞ괴ᄅᆞ여셩안
이봉눈ᄒᆞ여블븐ᄂᆞᆯ나왈ᄂᆞ이날ᄂᆞ인연ᄒᆞ여져
갓치신ᄂᆞ뢰나면소ᄂᆡ졀에여고ᄀᆞ잔디뢰온몸을ᄂᆞ
셩ᄒᆞ여빈이러ᄒᆞ여재발나홍낭이옷ᄉᆞᆫ손쳬왈몸이
장숙ᄒᆡ여숙일ᄒᆞᆫ홍진의ᄀᆞ물블ᄒᆞᆫ블엇져숙ᄂᆞ뢰회
뢰잇가원쉬ᄂᆡ소ᄒᆞᆫ손을ᄅᆞᄒᆞ도화갓ᄒᆞᆫ쌍을에
혹반져왈부용낭검을당ᄒᆞ여보지아니ᄒᆞ영ᄂᆞᆫ장
계을ᄂᆞ랑ᄒᆞᄂᆞ홰ᄀᆞ의셔ᄲᅥ린장을일우련ᄂᆞᆫ안
홍령을오나의울부겹다ᄒᆞ려던낙졀이거지ᄎᆞᆼ금
의모진굴욕셜을부ᄅᆞᆸ실계ᄒᆞ여보ᄂᆞᆫ낭쳥ᄂᆞ의

이ᄂᆞᆯ 나아 이러 안거ᄂᆞᆯ 왈쉬 ᄆᆡᆨ을 ᄀᆞᆯ너 본ᄃᆞᆫ 소왈ᄃᆡ
계ᄒᆞᆫ 쳔아ᄋᆡ 종ᄎᆔᄒᆞᆫ의 주신을 ᄭᆡ여 깁흔 병ᄂᆡ엄
스나 조심조정허라 허ᄃᆞᆫ 권이고 오ᄅᆡ 울ᄀᆞᆯ으며 견
토울 벗져 상의누오 볼져 즉ᄒᆡ나 홍낭이 구래순
양왈 군홍체 변이 계영을 너규 반하ᄃᆞᆯ은 소한
왈슉의 일홈 일졍을 쾨 군쟝졸이 ᄂᆞᆫ을 발키ᄃᆡ
기울 기우려 살리ᄂᆞ이 상공을 낭의 현히 ᄂᆞᆸᄃᆞᆫ 좌
동셔거ᄂᆞᆫ 도라가소셔 왈쳐 웃ᄃᆞᆫ 일어나 ᄇᆡ왈 ᄂᆡ부
졀염시 쟝슉 졸불여 ᄉᆞᆫ나라 일집의 가셔 화쥭상
리의 차습이 잇시 변슉 춘ᄌᆡ종이 엉슌 즉엇저ᄒᆞᆯ리
오홍낭이 ᄭᅵ 소ᄅᆡ여ᄅᆞᆫ 왈쉬슉 일ᄎᆡᆼᄒᆡ 못ᄒᆞ 이르
장홍의 도라와 소손ᄆᆡ라려 일으키 용ᄒᆞᆫᄒᆞᆯ이

우명타ᄒᆞ기ᄎᆞ 일ᄅᆞ조셥ᄒᆞ믈 일ᄂᆞ니 샹어ᄒᆞᆷ일ᄌᆞ시
ᄉᆞᄂᆞᆫ 장군 라상의 허리라 ᄒᆞᆫ대 초ᄉᆞ뵈왈 나라이구
병이 왓다 ᄒᆞ나 경쳑 거ᄉᆞᆺ 혈 가ᄒᆞ연이 다ᄉᆞᆺ 쳔쇠 괘ᄆᆞᄂᆞ
복학ᄒᆞᄅᆞ 뎡군 ᄒᆞ여 쳘목ᄒᆞᆼ의 진세을 베리ᄅᆞ 션
쳔심방을 응ᄒᆞ여 음양 진을 취ᄒᆞ니 일쳔 괘을 가져
졍남방의 진치ᄅᆞ 일쳔 게 식드회의 난와 검은 경을
가져 졍북방의 진치ᄅᆞ 삼쳔 게ᄂᆞᆫ 흰게을 가져 서에
의 난와 졍셔방의 진치ᄅᆞ ᄉᆞ쳔 게을 가져 ᄒᆞᆨᄅᆞᆫ 게을
쇠ᄅᆞ 졍동방의 진치ᄅᆞ 오쳔 게ᄂᆞᆫ 다ᄉᆞᆺ 셰의 난와 블
ᄅᆞ 게을 가져 다ᄉᆞᆺ 셰의 난와 졍남방 괘에 외 결치고
녹쳔 게ᄂᆞᆫ 여ᄉᆞᆺ 셰의 난화 검은 게을 가져 졍북방 괘
위이 외치ᄂᆞᆫ 구쳔 게ᄂᆞᆫ 아홉 셰의 난와 흰 기을 가져 졍셔

오날ᄃᆞ칠목ᄃᆞᆯ의거울비여창신을외기조ᄒᆞᆫ쥐
파흐ᄆᆡ니장쉬범갓치ᄒᆡ올녀흠갓치달아ᄃᆞᆯ
더졀이싱여함의뇌쳔통이빌을ᄃᆞᆯ너다라나
니죽ᄃᆞᆯ통이참쳑북을ᄃᆞᆯᄃᆞ쓰ᄎᆞ오거ᄎᆞᆷ니쳘
통이되ᄒᆞ일셩의몸을ᄉᆞᆫ손ᄲᅢ녀부을ᄃᆞᆯ와되기
ᄒᆞ로쥐니죽ᄃᆞᆯ통이ᄲᅡᆺ치기쥐못ᄲᅡᆯ내되울ᄲᅡ
쳐엽더지내죽ᄃᆞᆯ통이변신낙ᄲᅡ울내ᄲᅡᆫ길의ᄉᆡᆼ
ᄂᆞᆫ감샹ᄒᆞᆫ가달여지호ᄃᆞᆯ여월도을두루내대호
왈나ᄂᆞᆫ죽장ᄃᆞᆯ강장ᄋᆞᆫ가달이라병진낭장은나
의월도을바ᄃᆞ라웨니뇌쳔통이ᄲᅡ즌쐬홀석ᄒᆞᆫ
야쳐청응ᄒᆡ여왈ᄃᆞᆫ감을질ᄉᆞᆯ나ᄂᆞᆫ의슈

단은버셔나지못ᄒᆞ리라가달이뒤로울여위렬
슉향의가달이월도을ᄲᅢᆸ희씨로몸을ᄂᆞ두쳐번
돌여일디빅악쇄쇄여다시변ᄂᆞ여달이을러ᄂᆞᆯ
니쳔등이황ᄲᅡᆼ이ᄲᅥᆨ녀복을도뢰ᄎᆞᆫ야쳐을주
뎌뎌쇄쇄더니다시변ᄒᆞ여야ᄒᆞᆫ굴이되(여)ᄉᆞᆫ내ᄂᆞᆫ장
의게달아ᄃᆞ나쳐시녕걸의셔ᄉᆞᆼ취을보다가월
쉬빈장의흰ᄎᆞᆯᄒᆡ몰보ᄂᆞᆫ실슉ᄒᆡᆯ가져ᄒᆡ령쳐
줄을리득니ᄒᆞᆼᄎᆞᆼ이뒤와편장ᄉᆞᆫ북을보다가ᄂᆞᆷ
원슉의ᄉᆞᆫᄉᆞ거ᄃᆞᆨ물보ᄂᆞᆫ증헤슉거을쓸여지언을
념줄던니몬ᄃᆞ구불ᄅᆞᆫ주ᄅᆞᆷ이ᄒᆞ혀나며부슉실광귀병
이ᄇᆞᆫ실렬야헤여잉으로블을르혀ᄀᆞ으로ᄂᆡ물

쌍어병장을곳쳐내낭원취졔장을낙슈혀
여진본을ᄃᆡ졋ᄂᆞᆫ방위을차며쳔ᄒᆡ이허ᄃᆞ리오을
젹난ᄒᆡᄲᅮᆯ나ᄂᆞᆫ내흉숭의키변이ᄉᆞ변으로네오다
라치못ᄒᆞ더라홈ᄒᆞᆫ이다시진연을념ᄒᆞᄲᅢ현무
방위을가라치내평가강쳔지혼흑ᄒᆞ여통위
뫼작ᄒᆡ내ᄉᆞ석이날ᄂᆡ병진을ᄎᆡ나병진거ᄎᆡ정졔
ᄒᆞᄂᆞ각이ᄒᆡ병ᄒᆡ여일호올통ᄒᆡᄯᅵ엿으내ᄒᆡᄀᆞ원
옥외견병은무국션단의ᄎᆡ단을호위ᄒᆞᄂᆞᆫ진이
라쳔벼오헝지내의상영지거울은ᄒᆞ여혼헌일단
화긔라오ᄯᅡᄉᆞ귀여지쳠범ᄒᆡ되오홍숭은일단오
술노복ᄒᆡ여질병의ᄂᆡᄂᆞᆫ모도ᄂᆞᄃᆞ조두번범ᄒᆞ다
가라치못ᄒᆞᄃᆞ심ᄒᆞ외ᄃᆞ아ᄒᆞ여군을거두ᄃᆞ고

타와나닥다톄열으뒤더병원쉬비록진범
온아냐신네현슐법은영슈변알은밧다이흑
쳥흑목의신광을부르고흑젼흑강의기병을
호령ᄒᆞ여낭찬국을살오광으러타슐더타작서
병젼의서원쳐호슨바을길흉의불녀되는일을지
굴홍슐의슈단이쥴연이라쳐몰ᄒᆞᆯ리어시면
나혀테오소슨께뮈알흥흥은탕ᄂᆞᆫ이일혹어도인을
좃ᄎᆞᆫ병법부예을비와신이현일을쇠호ᄒᆞᆯ쾨와ᄊᆞ여
보앗슨운이쾌오헐방나이ᄂᆞᆯ가ᄒᆞᆯ나이다원쉬심
니외생각해뒤홍낭의변이젼연동젼ᄂᆞ심현연
ᄃᆞ여둘다시오젼현게홍파엽숑현져온을반고ᄌᆞᆫ
쌋오인죽낙질이연괴ᄒᆞ죽상치아나테오흔데당왈

홍혼ᄃᆞᆯ이신병이잇다ᄒᆞ기로조셥ᄒᆞ믈일ᄂᆡ시
나장군은조웅이가셔졔교을올녀보라ᄒᆞ신ᄃᆡ
운병ᄒᆞ고홍낭의쳐소로가니홍낭이ᄂᆞᆺ븍을벗고
샹의누엇더니ᄉᆞ마의몸병ᄒᆞ믈보고거신ᄃᆞ려양ᄎᆡᆨ
의비겨라ᄒᆞ니여왼키ᄇᆡᆺ계한ᄎᆞᆨᄒᆞᄂᆞᆫ취되ᄭᅵ인의ᄌᆞ
태여ᄅᆞᆯ몽롱이ᄯᅩᄂᆞᆫ셩안은손거ᄒᆞ블이거그못ᄒᆞᄂᆞᆫ가
셕이라ᄯᅩᄉᆞᆫᄭᅴ셩각ᄒᆞᆯ뒤기홍혼ᄃᆞᆯ이면ᄉᆞ혐약ᄒᆞ나
영웅이부쳐ᄅᆞᆯ가ᄅᆞ쳐뎌이혜다동이셔시의병ᄀᆞ회
로와키비의고은ᄂᆞᆫ자ᄭᅵ잇시며[illegible]ᄎᆞ난치못ᄒᆞ리로다
이의앙회나아가무로뒤즁일은장군의병이좌도을
엿어난가원ᄎᆞᆨ의부의셔시물바라왓ᄂᆞᆫ니라홍ᄉᆞᆫ메
랑ᄎᆞᆼ위편질을일ᄉᆡᄭᅵ인이라염녀ᄒᆞ실ᄇᆡ

엽스나금일젼상의셔운챵이업더허더니가
소슌뫼대강발흔ᄂᆞᆫ원슈의물계허는쏫즐젼
혀디홍슌뷔쥬졍월소장이무상저파잇셔원슈
의화젹혀타서물당쥴되잇가만는별나잇셔오
탕치못허릿시니가셔보아의눈혀슌이다허ᄅᆞ과
우조현조셩검을가져오라허여소슌매올셜아
쟝편의이르니원쉬홍슌마의오물보고놀나왈
장군의병이업더현재모조거니와조셩지아여흘 하나
ᄃᆞ몸소나아오조홍슌뫼귀왈소장의병은위경못
오나라텽쳐마르소셔라만무장나여젹쳬업더허나
이가원쉬왈젹진의셔주왕을쳥ᄃᆞ구쥴이ᄂᆞᄅᆞᆫ홍

울변털셔쳔냥방라평둥방은젼뒤ᄅ로두
ᄅ평북방평쳐방은방위울빠ᄂ북방쳬이외
는동북간방으로보게ᄅ쳐방쳬이외는셔북간
방으로보게ᄂ동방쳬이외는동남간방으로보기
남방쳬이외는쳐남젼으로보게ᄅ평둥방은순은톡ᄒ
롤거울가져각ᄀ쳐방위울맛타ᄂ둥재ᄅ쳐게ᄅ평
남강방군순은념은거울가져각ᄀ쳬방위울닷ᄅ여둥
재ᄂ쳐게ᄅᄂ평쳐방군순은흰거울가져제방위울
라ᄅ여둥얽재ᄂ게혀ᄂ나속울평히여왈블ᄅ다울ᄅ고기ᄂ
평방군셔용헐ᄂ검은거울ᄅ롤거롤간방군셔공훈
와진쌔울변호여ᄉ셔여나속외평군ᄂ참훈리라핀
ᄅ혹윈쉬진싱의울나진쳬울보ᄂ셥나여졍핀ᄒ여

울거나혀나와젼을칠신열ᄃ구방위을난
화오셔과을솟ᄃ존셔가ᄃ쟝검을ᄃ들여시나살
거든ᄃ허거늘병진의셔바라보든흉순미[illegible]소를
ᄃ뫼쳔ᄃ을오나가싸호라ᄒᆞᆯ나ᄡᆞᆫ젼의셔츅산장
군쳘목홀이나와평쳔츅향의병젼의셔능
호빠달이나와뒤며발어쳐너거지못혼한을
오날ᄉ홀너ᄂ쳘목홀은일병을일ᄊ기거롤쌀
너ᄃ려가ᄃ홍늘뤼왕을기여보게하ᄒᆞᆯ나ᄡᆞᆼ진
의셔쳥화ᄒ장군츅돌흥과가달이나와여셧
쟝쉬대젼십여향의병장삼인이일변싸호ᄃ
일변물너나나류어진상의셔보바왈병진의
셔싸홈의솟지영쳐ᄂᆞᆫᄃ호믈너나ᄂᆞᆫ은우연히

는졔고타낭창극은쇠ᄇᆞᆫ으레술이연독이나쇠
군을잠간거두어소록이ᄒᆡ업게눈이조ᄒᆞᆯ가ᄒᆡ
노라ᄒᆞᆫ동은본디셩이급ᄒᆡ고조울이뎌본연일
네나가삭화창쿠을손도잠지못ᄒᆡ별양이오
라가지아니라ᄒᆡ배급ᄒᆡ리울두둑배길언을
염들니본둑당둥이ᄃᆡ작ᄒᆞᆯ내음듕에ᄒᆡ는곳의부
숙현신변키ᄒᆞᆯ이거러ᄒᆞᆫᄒᆡᆼ용으로ᄇᆡᆫ장와위ᄭᅦ울
돕는지라홍손뮈복을쳐배거봉거울ᄒᆡ우로울우
내간방은셔일시외긴분을별ᄃᆞ갈나ᄒᆡ나ᄇᆞᆫ랑상인
이키병을모라병진을들내싹ᄃᆞ순변으로ᄒᆡ디서ᄒᆡ
지못ᄒᆡᄃᆡ니본ᄃᆡ진거슬보ᄃᆞ키병을모라ᄃᆞ룰입ᄒᆞᆫ디
홍손뫼다시부울처배거몬커얼ᄃᆞ룰어울ᄋᆞ다

간방셩문을ᄃᆡᄒᆞᆫ 부용검을드려오방을ᄒᆡᆼ
ᄒᆞ여가ᄆᆞ니진언을념ᄒᆞ니호풍이일며텬동의홀
칼ᄭᅳᆺ의셔이러나며음운이ᄉᆞ라지ᄂᆞᆫ 부속키ᄲᅧᆼ이
홀셜ᄂᆞᆫ듯ᄒᆞ며쳔지ᄂᆞᆫ 변ᄒᆞ여홀ᄲᅧ뢰풀넘히라무
숙이공즁의셔날니ᄂᆞᆫ 발장이잇어뒤경ᄒᆞ여홀ᄭᅡ단
거ᄒᆞᆯ진동의ᄊᆡ이여ᄉᆞᆫ별으로라우뢰ᄃᆞᆯ히나버셔
나지못ᄒᆞ여ᄒᆞᆫ용ᄉᆞᆫ 미진상의숨ᄒᆡ얏ᄃᆡ부용검을
ᄃᆞᆯ어낭울가라ᄃᆡ니삼나화불이ᄂᆞᆫ 더나화당이ᄂᆞᆫ
현ᄒᆞᆫᄃᆞ 부울가라ᄃᆡ니수감숙물이ᄒᆞᆫᄉᆞᆫ대희방ᄂᆞᆫ
ᄒᆞᆫ녀동서울길아지뒤뫼와ᄃᆡ작ᄒᆞᆯᄃᆞ되이당현
ᄒᆞᆫ나셰장ᄎᆔ평신이ᄂᆞᆫ 틴듯여아모뢰옹을부리나니
세이경ᄂᆞᆫ ᄭᅢᆯ이ᄭᅡᆯ에나물ᄉᆞᆷ공ᄂᆞᆫ아ᄃᆞᆯ이변신코저

네재ᄅ칼을ᄅ드러다시방위에을갈으치며편
연을넘ᄂ더니홀연중통의쇠한바레긴조셩연동쳔
울ᄒᆞᆫ들ᄅ살리살리자옥ᄒᆞ내ᄉᆞ면팔방으로지
신ᄅ광이음오현귀음으로거형리상이각비수장
창을가려물아올니쳔지진동이타일시에병진을
시살ᄒᆞ려거줄ᄒᆞᆫ순뫼수거을ᄅ줄어하령왈졔
장생ᄉᆞ은다빗이수거을바라보ᄅ한데보ᄂᆞᆫᄌᆞᄂᆞᆫ참ᄒᆞ
되라ᄒᆞᄅ하령ᄒᆞ며너졔ᄌᆞ이로ᄅ일졔이수거을울되
ᄉᆞ보내ᄂᆞᆫ중에수연ᄒᆞ여감히울등회못ᄒᆞ니저라ᄒᆞ
ᄉᆞ기복을치며중앙으로쳔귀을방편을일왜자희내
불ᄅ거울ᄅ굴우ᄒᆞ여중셔남북ᄂᆞᆫ셔일시에진본을
열며갈나셔나중승이신병을거ᄂ려방편을소술

ᄃ재해다가진몬때지물브ᄂ일ᄉ외ᄃ들이엄즐니훈은
뮈북을긔버려가을들니진몬을닫ᄂ북옹갈옴도
터옹방을가ᄃ치나오셔허온이ᄂ려나버진중와가
독허여삼ᄌ의ᄂ의쳔장실병이보이리양채ᄂ발
발호뒤와거쳐검주이수르금후의셔형흘본ᄂ줄
더타홍은뷔바야흔로북을올니버향뒨헐셔형
셔방수빅거ᄂ금쥬북으로감을방을치ᄂ텽둥방
승쳔리ᄂ목쥬도로무리방을치ᄂ텬냥방일쳔
리ᄂ화쥬름으로광신방을치ᄂ쟌북방활뵌리ᄂ
슉쥬화로뱅텽방을쳐ᄂ중앙일쳔거ᄂ드즉슉즐임페
방을쳐니쌍앙이몰어리ᄂ바다이뒤치ᄂᄃᆺ쳔지진동
줄녀일진뒤실의다시북을뫼버거몬리을ᄃ줄

뫼둥쳐나고북가히응ᄒᆞᆫ셔일시의진문을열거ᄂᆞᆯ
이쇄상이선봉이되ᄒᆡ상쥬ᄒᆞ여ᄎᆡ뫼엇지ᄒᆞᆯ쥴모
로다가졔문이열니며ᄂᆞᆯ능여ᄉᆡᆼ이션봉을보ᄆᆡ
ᄇᆡᆼ진을에워ᄯᆞᆯ잇ᄉᆞᆫ여ᄉᆡ치고븟을여ᄋᆡᄒᆞᆫ뒤
다시북을울니며군ᄉᆞ를ᄃᆞᆯ오며진밧긔셔진
문을다ᄂᆞ복룡검을들어자ᄇᆡᆼᄋᆞᆫ나홀연ᄒᆡᆼᄒᆞᆼ
이갈쓰ᄒᆡ쳐나오며능운이ᄉᆞ라지고무슈신장이븜
눈스ᄃᆞᆺᄒᆞ더니모ᄃᆞ안모넘ᄯᆞᆯ넘어ᄐᆡ응ᄋᆞᆫ이ᄲᆡ
쳐ᄆᆡᄃᆞ일ᄂᆞ며ᄇᆡᆼ낭ᄂᆞᆫᄇᆡᄇᆡᆼ진쟝ᄌᆞᆯ이ᄐᆡ우롱살ᄒᆞᆫ
니동ᄌᆞᆼ이ᄂᆞᆫ을보ᄃᆞ분거ᄒᆞᆼ쳔ᄂᆞᆫ여다시격연을되
우ᄂᆡᄂᆞᆫᄃᆞ쥭쳐번ᄌᆞᆯᄲᆡ긔빗여ᄌᆡᆨ이우ᄃᆡᄂᆞᆫᄉᆞ람이되여
ᄒᆞᆼ겸을ᄃᆞ쥭ᄂᆡ여ᄇᆡᆼ진을ᄒᆡᆼᄒᆞᆫ여오ᄂᆞ롱ᄂᆞᆫ머비ᄉᆞᆷ을

ᄂᆞ주ᄉᆞ이러나장충의ᄃᆞ려가내ᄉᆞ변의장을지우
ᄃᆞ책연부동리ᄃᆡ여본두탈졸기ᄒᆞᆫ거운이장충
녀셔이러나매빗여강이나되ᄂᆞᆫ홍ᄉᆞᆫ뷔되여박여책
되ᄂᆞᆫ부용검을ᄃᆞᄅᆞᆫ홍충을ᄃᆡ책ᄒᆞ여ᄃᆞᆫ홍충이라
시변을여적으ᄆᆡ폇ᄡᅳᆫ현ᄉᆞᆫ탐이치여청옷칼을가
져ᄃᆞ다라오거ᄂᆞᆯ홍ᄉᆞᆫ뷔변ᄒᆞ여더굴갓치되여덜
옷갓ᄒᆞᆫ부용검으로홍충의칼의넝거여셔러져ᄂᆞ
ᄂᆞ리니홍충이라새변ᄒᆞ여사람은갈뒤어ᄋᆞᆫ한
졸기홍을이되여날아오거ᄂᆞᆯ홍ᄉᆞᆫ뷔변ᄒᆞ여일되
청용이되여두졸기거운이반ᄂᆞᆫ순의어우러져ᄃᆞᆫ만
칼솟뤼ᄠᅳᆫ울간의져졸내령이포올연거운거운이셔
히져내변을여희련냥이되여다라나거ᄂᆞᆯ

흐ᄌᆞᆫ재운이변ᄒᆞᆫ여ᄐᆡᆫ져되여젼남을ᄲᅳᆺ제
너견낭이ᄲᅧᆫᄒᆞᆫ여두발이나현네얌이되여바회
ᄃᆞᆷ으로ᄂᆞ트려가며그럽게변ᄒᆞᆯ여벽녁이되여바회
을ᄭᆡ치니그비양이뎡으로거문안개을토ᄒᆞ니병
낭ᄒᆞ연날이지척을분별치못ᄒᆞ게되니그벽녁
이변ᄒᆞ여일진ᄃᆡ풍이안개을쏫치며일귀청
명ᄒᆞ여아모것도업ᄂᆞᆫ지라홍순ᄯᅥ옷ᄂᆞᆫ장숑의ᄂᆞ
라온이ᄌᆞᆫ시변ᄒᆞᆫ의세바라보ᄂᆞ드니이ᄒᆞ여물칠잔ᄃᆞᆯ
더이홍순ᄯᅥᆨ나오ᄆᆞᆯ보ᄃᆞ부ᄃᆞᆫᄃᆞᆫ츙츙은에대기ᄉᆞ시며
장숑은묵상도술이니잇가홍순ᄯᅦ술일세상술
명이오회과너외버뇌나ᄀᆞ아낫ᄂᆞ니그상셩상극
쾨ᄂᆞᆫ이ᄊᆡ을아라ᄯᅢ어ᄯᅥᆫ륙지되ᄒᆞᆫ지라대범ᄉᆞᆫ광

개샹신태손네임의은공혀여ᄉ오나한번더셜회
결혼지나복친은여삼성각즐은ᄉ리쳬을가아
야이ᄒ씨ᄉ장간셔노흔손혀롱춤이란왈네야
비영웅으로당회못혀가를네일더아니혀오
병장의진법검술은쳔셩쳔이라네아의당할
비아닌가를노타얼골지연이분연이커갈신샹ᄒ며
나는혀비강쳬병질의녀야ᄒ니흔손뫼쥬을과
나혀ᄒ믄쇠흉불서진상의쇠바라불년소녀장이
ᄂ혀의불은ᄆ알아기싫은몸의즐곡속노흔오술
일년ᄅ뻬원ᄆ을혀시어빅셜갓흔안보의홍운을
질감친의여셔어셜연과아우혀ᄋ변년거즈ᄎ츤더욱
절연줄ᄂ내원산이ᄉ외ᄒ촉치면혀여전저동인흔나
ᄀ흥혜현흑허물짐작혀ᄅ리라흐ᄎ쳐단울

의졀대가연애라화려ᄒᆞᆫ거상이남방ᄒᆞ너와
부래의셩광ᄒᆞᆫ신불이래오홈ᄂᆞᆫ계일안의대열
ᄒᆞ며순야쳐로되젹ᄒᆡ라ᄒᆞ니야쳐ᄒᆞᆼ들ᄅᆞ나오녀
우어왈이반다시홍춘왕이오술노ᄀᆡ물을보
내비라날방오령ᄒᆡ이런졀ᄅᆞ되비인의ᄯᆞᆯ의잇
시ᄅᆡ오일ᄌᆡ연이쥐로ᄒᆞ여대ᄌᆞᆫ송ᄒᆞᆼ의일ᄌᆡ연이
쌍광을염회셰ᄅᆞ솔안쳐을셩음ᄒᆞ여거홈ᄂᆞᆫ
뮈왈ᄂᆡ가나가싸화려너광을잡아순안쳐을밧
ᄅᆞ아오리오뇌편ᄅᆞᆼ이벽너복을ᄃᆞᆯᄅᆞ본연이내다
편불순으량의녀셜봉의굉법이어거려왜ᄅᆞ쳐로
쌍황을빡야졀회못ᄒᆡ거ᄂᆞᆯ중로바달이일서
의나와뇌쳘봉을도와샹ᄋᆡ황ᄋᆡ일ᄌᆡ연이샹장되
쟝의졍신이비ᄅᆞᆯᄅᆞ거샹이ᄃᆞᆯᄋᆞᆯᄒᆞ여평솔은뻘

간횡지셔을일흘가초쳥혀불부랴줌여더
니여졔낫지아니솔ᄒᆡ홀전히본엿진일이며삼군
장셔혀다혀나쳡응케혀라홍순뵈숙왈순아혀는소
장의의인이라이졔변진의은헌베쥐니그을주고져
졸비니이다원쉬소왈네장군의혹을아나요변예과
로변초녀져로핀혀불보고져로을결우근혀나이
졔장군의게은이펀보야라이달나빙녕도이도젼[illegible]봇
히회타졸대뇌현봉의왈메다시나가이가초순도져
을시쳥혀리라졸근나가려혀여홍순뵈왈이졔번광
을보내쳡을지져와그우이외지줄보내혀쥐빌근상
즘혀여오초혀뇌훤홍이대소왈이쳔홍이헌변칠
심의장부지심이라여지주형우쳑의내은을도쳐졸

쾌히ᄒᆞ오ᄆᆡ당이홍장군의횡울바다시며무양이셩
공ᄒᆞ여오리라ᄒᆞ더니가ᄋᆡ원슈이ᄒᆞ로ᄃᆡ호ᄒᆞ여ᄃᆞ다이여
일리연이홍순ᄭᆞ로졉쳘ᄒᆡᆼ의병진의쇠ᄅᆡ쳐로
을너흉니진쳘의쳐병진블셕을바ᄅᆞ로병셩각ᄎᆞᆯ
데니일흑룡화문본을구경ᄒᆡ보려엿더니병평
의운병장ᄂᆞ라의란본물이라연세상의ᄂᆞᆺ던ᄂᆞ회
뵈고뎡괴이ᄂᆞᆯ괴ᄒᆞ울ᄀᆞ다이ᄂᆞᆫ박괴방의영장현
연셩은우물속ᄂᆞ로ᄃᆡ나다ᄒᆞ로뫼오이쾌되병쳐ᄂᆞᆫ왕
을쾌반대ᄂᆞᆫ엽다ᄒᆞ거ᄂᆞᆯ무ᄃᆡᆫ이비반ᄂᆞᆫ여화을ᄂᆞᆫ
회ᄅᆞᆯ여역모의흉측ᄒᆞᆷ을내여엿지당냥이태산가용이
ᄋᆡᆼ이되오ᄃᆞᆯᄋᆞᄃᆡ병원쉬변소뤼장으로리레와외거
로살육을뮈거ᄒᆞᆫ욱ᄃᆡ로미왕을강화로ᄒᆞ며
근쫏ᄎᆞ리여이ᄂᆞᆫ란ᄅᆞ홍지리라이숙을타슨다경을

ᄂᆞ이오ᄇᆞᆯ장군은노인이라ᄉᆡᆼ발ᄂᆞ라가ᄂᆞᆫ양가ᄉᆡᆼ검으
듯장슈을비여보니라ᄒᆞᄂᆞ니녀션봉이ᄒᆡ젹지못ᄒᆞᆯ
지라무연이본진의도라와홍손ᄇᆡ을보ᄂᆞᆫ젹진녀
장의무예졀눌협그ᄇᆞᆯ을ᄂᆞ테니홍손미원슈긔
ᄂᆞ왈소장이남방강한젹군슈을비화보려ᄒᆞ닐
청으면병이발ᄒᆡ오니ᄇᆡᆫ일슉졀편을ᄒᆡ치이ᄂᆞ시
슉ᄒᆡᆷ병ᄒᆡ을지ᄒᆞ라싱ᄒᆡᆼ을정ᄒᆡᄂᆞᆫᄇᆡᆫ장을잡괴
봇들오년진을거두소ᄒᆡᄒᆡ되길ᄂᆞᆫ나원쉬ᄇᆡᆫ변ᄂᆞᆯ
라슌니홍손며발게을나ᄂᆞᄂᆞᆫ시씽거검을도을ᄃᆞ나
강이일ᄂᆞᆫ지연이씽창을두루며쟝편ᄒᆞᆯ셔홍낭
이셩작ᄒᆞᆫ뒤일지연의검법이일호졔ᄉᆞᆯ이업ᄉᆞ
나리ᄒᆞᆯ젹도도그러ᄌᆞᆫ을보리라ᄒᆞᆯᄃᆡᄉᆞᆨᄎᆞᆼ씽

겁을군즁의더지ᄂᆞᆫ발을줄너야라낭이이는평회
뢰비벙이나이이는손오나온뱀이소리을쌋회시는벙
이라일리연이싸상의셔봄을ᄎᆞ아쌍리광으로쌍
겸을박으며발을달녀쏫채나이는빅낭즁슈볍
이니흰일회슨슴쏫는걱이라홍낭이발네펑굴돌
나며쌍슈로쌍겸을빗아우슈로복옹겁을공즁
의견우녀좌슈의복옹겸을일리연을치쳐는나이
는손셔박도벙이이는손셔도거울쾨는모양이라일
리연이광을동으로견죽떠셔ᄒᆞᆫ로번도펴일건일퇴
즐너이는지죽박접벙이니러믜나뷔을업는모양이
이라이리러여슝부엉더며홀연쌍검쌍광이일시와
더우쳐쳐되가ᄉᆞᆫ칼날이번ᄃᆞ거ᄉᆞ쾨ᄒᆞᆯ보ᄂᆞ

ᄌᆞᆯ배여는화ᄌᆞᆼ로셜병이여는회호패바람
의빅셜이얼나는모양이라몬즉낭인이가히업ᄂᆞ다
ᄭᆞᆫ두ᄌᆞᆯ기록ᄒᆞᆫ거울이빈ᄎᆞᆼ의어리여ᄎᆞᆼ롱의셔ᄊᆞ
ᄒᆞᆫ이는쌍굴반쳥병이여모롱태한셩이하ᄂᆞᆯ의
다거는객이라반향이보ᄂᆞᆫ여일지연이쌍지상을께드
ᄂᆡ대ᄀᆡᆨ지보ᄂᆞᆫ여몸을ᄭᆡ여야다나뢰히나이ᄌᆞᆫ경ᄒᆞᆫᄡᅡᆼ
운범이여ᄂᆞᆯ난기러기ᄌᆞ름을바라ᄇᆞᆯ근져히는모양이
다ᄒᆞᆼ낭이ᄡᆞᆯ을모라ᄉᆞᆼ도ᄂᆡ칼을ᄲᅢ히ᄂᆞᆫ칼을ᄂᆞᆯ
회여일ᄌᆡ연을셩즘ᄂᆞᆯ나이ᄂᆞᆫ쳥읏ᄌᆞ회병이여ᄌᆞᆨᄂᆞᆫ뫼
가ᄭᅫᆼ을읏께는모양이라ᄒᆞᆼ낭이여셜ᄒᆞᆷ의일지연
을셩즘ᄂᆞᆫ여볼진으로도라온ᄌᆡ져이싸ᄒᆞᆷ이ᄅᆡᆨ긋ᄌᆞᆨ상
쳑이케ᄭᅦ을바리ᄅᆞ쳥도ᄌᆞ쎨우뷔일지연의시믈ᄶᅧᆼ

부령낭의스랑흐는마음이상하되여홍낭이일
퍼연의손을잡고위로왈비컨대일낭을생금하본겸
술이흥해이양파하날이저거상봉을계시하시면
내패로잇지발나라일지연이순태왈취존지장을엇
격고과다흐리오장군이난의신체을불상이여기는회
하와거록시물바다낭이견디지쎵을다흐리이다흐온
미호왈홍흔탐불비흔낭이빠러지어날전래본
우간뷔조빗조리라일리연이누추을색패왈청이아
비천조의두죄허이영흔불다인주리의호비왕의청
을러흔시되못방스거지의범허여스온이살기을바라
되온바는장군의인은허심하와주의편흉즈시오로되
을순허스인은병을빌니시면은덕을결초보은순여

숑츄을 보ᄂᆡ여 기ᄂᆡ랑ᄒᆞ기 물보ᄃᆡ 졍ᄒᆞ여 비로
소병젼의 투항ᄒᆞ여 ᄂᆡ아을 구조ᄒᆞ여 ᄃᆡ원의
일지연이 모ᄒᆞ와 원슈와 혼ᄉᆞ의 위덕을 칭송
ᄒᆞ며 병젼의 지위ᄒᆞ여 불발ᄒᆞᆫ대 흉슈이 반신배의
놀며 이의 과거슉ᄒᆞ랑을 거ᄒᆞ니 ᄃᆞ숀야 채을 어져
맹젼의 투항ᄒᆞ여 원슈ᄌᆞ우ᄒᆞᆯ 먼저 슐ᄒᆞᆯ 너흔연
당ᄒᆡᆯ ᄯᅢ일운외 십지어ᄒᆞ여 흉슈은 본셩이 우
작ᄒᆞ나 고숀치 아닐리라 그랑구ᄒᆡ며 졍ᄒᆡ불보ᄃᆞ감
누을 흔흘ᄂᆡ며 숀을 ᄲᅦ부더 왈 다인이 비록 반뵈지즁
인ᄂᆞ도 면ᄐᆡ흔 평의 돈슈현 마비여 쳑묵이ᄒᆞ여지 원슈
의 뒤더을 길흠올 뫼니의 오ᄂᆞᆫ 숀이 강은ᄒᆞᆫ드믈니로
ᄐᆡ잇가 원슈ᄒᆡ회ᄒᆞ여 ᄒᆞᆫ훈의 ᄇᆡ훈을 평숑ᄒᆞ며

즁의 내ᄌᆞᄂᆞᆫ 메복ᄒᆞ거ᄒᆞᄂᆞᆫ비로 남여ᄒᆡᆼ믈이 초치본
을 드ᄉᆡᆷ의 복왕이 ᄌᆞ즁의 잇ᄉᆞ온ᄃᆡ ᄒᆡᆼ은 본국의 도라
가 내ᄒᆡᆼ을 출일ᄂᆞᆫ가 ᄒᆞ나이다 홍ᄉᆡᆼ 미조왈 낭의 말이
라 ᄒᆞ더라 ᄉᆡᆨ의 무난은 그 아비 울위ᄒᆞ여 홍군을 엿ᄉᆞ
이 울넝지 구외ᄒᆞ더오 일ᄭᅦ 연이 ᄎᆞ자을 홀네 홍ᄉᆡᆼ
ᄭᅡ울 보ᄇᆡ왈 ᄒᆡᆼ이 비록 ᄲᆞᆫ내 지방의 ᄉᆞᆫ대에 법을 보
로 나 남네 복즁ᄉᆡᆨ은 셩인지 소ᄌᆞᄂᆞᆫ 즁의 잇ᄉᆞᆫ 죽어
지 남ᄌᆞ와 비견통치ᄒᆞ며 불변ᄒᆞ리 잇가 그로 무난의 즁
굴이 홍호ᄂᆞᆫ 죽잔다 ᄒᆞ나 가범게 죽의 눈버셔 난가 ᄒᆞ나
이다 홍ᄉᆡᆼ이 ᄎᆞ연을 조ᄎᆞ 눈을 홀네 일 지연을 보네도
와 낭ᄒᆡᆼ의 홍홀이 ᄃᆞᄒᆞ다 나이ᄂᆞᆫ 근거ᄂᆞᆫ 손 볼 그ᄃᆡ니라 복
연이 말이 엄ᄃᆞ니 그 말을 ᄃᆡ답지 못ᄒᆞ더라 ᄋᆞ 그ᄂᆞᆯ ᄎᆞ볼
그로 내ᄌᆞ의 홍군은 복둑지 ᄉᆞ라ᄒᆞ여 가ᄂᆞ니 ᄃᆞᆫ졍 ᄎᆡᆫ일

드발뎌는드는이칼노시형허리와뒤드여얼
굿허동옹을뉴드쥐와나뎌리쳘목동지형이형
혼가운데반왕쾬축라보쾌뒤불을두드반벼줄ᄲ
성복한드뤼여자나탁이날이여술희을베신칙
허뎌나훙능뒤왕이동몸의뫼몸을열나출나나탁
이누워울나보고크게꾸지괴왈엘굴불근오랑캐
반복투항을여무선복의뒤나녀아모커나녀슉즙
을베여철희의호령허여누신복의혼존을충계
즐뒤라언카의활을갈희여가마나춘아흠능의
별목을끗쥐여동능이쳐움오손조을달게여호화
고쳐허다가여노즐여일변실을쌔이여칼을드뒤
나탁을갈으쳐왈불의은난빅와숫퇴드는드기

좌내병이경각간의잇시불보ᄌᆞᄅᆞ이갓최ᄉᆞ욕
졸ᄂᆞᆫ다이의병전의조리와완숙거평뻥오쳥[illegible]벌
니시변쳘복종을쳐최원숙의번거ᄒᆡ서불델
어미라원쉬하락편쉬일제번이간일빈왕이쎄
공녀건허대향복지아녀ᄃᆞᆫ혼ᄒᆞᆨ을직화니니는
는비(로)잇시니라야ᄀᆞᆫ경ᄍᆡᆨ지발으쵸쉬흉ᄂᆞᆫ이듯
게안녀해ᄂᆞᆫ조줄ᄂᆞᆫ둥가달ᄃᆞᆫ을게나려쳘복종을
에왜색ᄃᆞ상일실삼야을치레세치지못ᄒᆞᆫ니이는색
벽이옹기숙싱장이본색벽을이여셩을쇄아사별
으로셩녹외구리블우여벽여쳘용셩이차오밧고로
아흠쳥이잇쇄흉ᄂᆞᆫ쳥ᄂᆞᆫ이방비ᄒᆞᆫ비잇시어능희
인녀으로좌지못쳘지하실변리줄을불

너와 부녀 창으로 지러 반색 갓ᄒᆞ여 다시오
방현화을 일■흐여 젼후 괘우를 총화ᄒᆞ나
나혹이 임의 셩상의 총거울 곳ᄎᆞ져 들어블이
범치 못ᄒᆞᆯ 조임게 방물을 다여 동총의 부은데
나닥이 임의 동총의 온구을 라ᄅᆞ 부어 한평 몰ᄌᆞᄅᆞ
이개 아내 허나 총숭이 화 허지 븟슬ᄅᆞ 도라온 닷쉬
셔양의 홍ᄉᆞ바을 ᄌᆞ용이 불너 혈부동칠 일을의
눈ᄃᆞᆯ 니 홍낭이 대왈 이 일을 셩각ᄒᆞ면 졔오 뢰나 실
노제 그 넘ᄅᆞ다 ᄲᅡᆫ한 가지 방바이 잇시나 바화이 동총
쟉곡이여 상ᄒᆞ나 셥년 그제의 나저 못할 지라 이
졔 원쉬 대줌을 내무 ᄅᆞ스 십년 을 작 뒤 ᄅᆞ 흉
북바ᄃᆞᆯ 가을 나이라 원쉬 왈 이 일은 못될 바ᄅᆞ 우

가거나 손순조일을 관대박이지 충이 발ㄴ 절녀
의구릇치 못할거시오 순조일을 관대남편
이져당하손지아 하서 네간절히 세하여 커심이
여시라 엇지 수를 하불 셨아 샹번을 기할 이리오
흥남이 소왈 샹공이 스순조 셩각하시 건귀 표옹
득한하여 굿셴 옹녀여 흉흉하여 더하셔 가
뵌 쉬올니 씻지 못할이오 하혼남이 우왈 그러면
잠을 을부하외 하더하여 믈부르읍 술ㄹ 힘을 다하여
스셩을 도하보지 아여비 흉흉하여 어대하여 잇는 뵌
쉬올니 랑하지 못할가 하노라 우왈 남번는 도와
빤궁재 한을 아라 돈하ᄆᆞᆯ 혜ᄂᆞᆯ 터하이 흉흉하엿
더하여 되잇는 뵌 쉬올니 씻지 못하리라 우왈

년주츙츙에형을다ᄒᆞ드려고을다ᄒᆞ여
숩죽야을치ᄃᆡ씻쳐지못ᄒᆞᆫ둔ᄒᆞᆼ울상공이엿
재하로쳐ᄒᆡ시다니잇가원쉬냥구렴움왈연즉
니쥴형ᄒᆡ엿다가셩ᄉᆞᆼ치못즐ᄉᆞ도라가라즐비
냐홍낭이비소왈이졔ᄒᆞᆫ가지박거계묘엽스니
상공은드로실거ᄂᆞᆯ복울발ᄂᆞᆫ소셰이무상제ᄒᆞ온지
하회울분부ᄒᆞ라
홍순아장겹ᄎᆔᄒᆞᆫ즌 냥원슈보헐졍남젹
냥원쉬페조을무로니홍낭이소왈셕의오거ᄂᆞᆫ그
안회울죽여장슈되기울구하여그졍송은되헐울
잡아죽여근순울버엿사니이졔상곤이헐여버리
조체ᄇᆞᆫ왕의버리울되실술비엇더하니이엇드원쉬

와연부당의홍낭을축시ᄒᆞ나홍낭이다시오
ᄃᆞ왈쳡이이일을평영ᄒᆞ나실노ᄒᆞᆯ목동자ᄒᆞᆯ
방나이염슌은나증야삼경의삼쳑비슈를품고젹
진의가얼이조용ᄒᆞ거든금하랑을도젹ᄒᆞ여오나다
용션이ᄭᆡᄃᆞᆯ거시오긔미를보아변나라의ᄂᆡ뢰를어
ᄃᆞ려ᄒᆞ나슌블여와ᄒᆞ변셩환ᄒᆞ기어려올ᄃᆞ조쳡의
ᄂᆡ뢰졸쇄ᄇᆞᆫ왕의ᄂᆡ뢰을받ᄃᆞ미라ᄒᆞ니이다원쉬
쳥화의어ᄒᆡ엄셔이우이깔시ᄒᆡ여왈실쳐주장은오
거의박힝이오효의조존순백이온장술의제궁이라
니이졔비ᄇᆞᆫ위ᄌᆞᆫ을거다려ᄇᆞᆫ왕을파ᄎᆡ못ᄒᆡᄃᆞ어련ᄃᆞᆫ
ᄉᆞ을연ᄂᆞᆫᄒᆡ뢰오이ᄂᆞᆫ날을젹동ᄒᆡ니화홍낭이ᄉᆞ
졔왈쳡이엇지상궁의쏫ᄌᆞᆯ보조리잇ᄂᆞᆫ가

울노아쳘환이비발쾌ᄒᆞ여려쳅셕벽을쾌쎄돌
이바아지ᄅᆞ번리가ᄒᆞᆫ불이ᄂᆡ벽나가ᄒᆞᆫ로셩이샨
텬을움작이ᄂᆡ쇄ᄒᆞ고샹응ᄒᆞᆯ여텬지진동ᄒᆞᄂᆞᆫᄃᆡ빈흠
금쥬쉬샹여피의옷혓더라반일을쾌대쉬치리
못ᄒᆡ나다시지혐을ᄎᆞᄌᆞ길을ᄃᆞ동ᄒᆞᆫ뎌쥬셥장을다
지동통곽우조쳘빙을휨모이못어셔나ᄂᆞᆫ헤ᄉᆞᆯ재
못ᄒᆞ난재ᄒᆞ아이러ᄐᆞᆺ심여일어되나ᄒᆞᆫ숀머간원을ᄂᆞᆫ
ᄃᆞ의옹병ᄒᆞ는도뢰젹쥬이혐으로당ᄒᆞ돈쥬나는계교
조훠내텩쥬이케술노회별나는평로조다ᄉᆞ돌피나나
탁이인ᄒᆡ혐을빗ᄂᆞ지회나지혜조체이울줄을가ᄒᆞ
나어다어의전편의쇄왜여왈ᄃᆡ병원쉬빈왕을친
뢰보아쳘발이잇시나정문편셩샹의나셔라ᄒᆞ나닥
이나탁이쌍두의울나원슈을보ᄂᆞᆫ길에옵ᄂᆞᆫ

허거늘흥순키되쥐왈내이해오뢰통젼을일
코일현ᄃ평을잇어작허ᄂ뎨허너이는ᄃ기우물의
놀ᄃ뎨비ᄇᆡ상의기ᄉᆞ리ᄂ라이뎨더병원쉬탕뱅
울박은와호셩지역을ᄑᆡ순실을벌지심을두거이
니몬너의뢰작ᄒᆞᆯ지라니ᄂᆡ뢰울온날가져보젼ᄒᆞ분
원슈의뒤더이라그은덕을모로ᄃ반심을ᄂ회지이다
흘여쥐병삼근빅빈지훌을오ᄂ회슈ᄂ계흘너너엇
재ᄒᆡᆼ으로와허리요이쾌지쾌로네슈급을가져오되
나생불방비태여허옷복ᄭᅵ엽게허타이의졍을쳐군
순을물너ᄃ타오나타사야의홍순뵈홍놀ᄃ왕을쳥
호여원슈장중으로보이ᄃ의순왈ᄃ왕이나탁으로
더ᄇ허연슈리졈이손어졀볼이어쾌나탁이무순편
목뒤왕의게나치아닐지라ᄃ왕이나탁을회출

동의가나무에매달을취허지말ᄂᆞ다만내되
우의ᄃᆞᆯ을난산호증ᄌᆞ을돼여오리다서칼ᄅᆞ처을뵈
여왓던ᄌᆞ취을로혀ᄉᆞ쳐홍춘이허락ᄒᆞᄂᆞ나거에
라원취왈낭은쾌히ᄒᆞ개이번홍츈에셩공ᄒᆞ다ᄒᆞᄂᆞ
홍ᄉᆞ뮈쇼에대왈홍츙의검술이북평ᄒᆞ여다만
나닥을놀나이ᄃᆞ올가ᄒᆞ나이다원취왈연즉이혼바
온는범의굴을지ᄅᆞ니라여지우회ᄭᅮ이저아니되오
낭이쥐왈이가온데제묘ᄒᆞᆫ길가ᄒᆞ나이다이리ᄂᆞᆯᄒᆞ재
내밤은후홍츙이칼짐ᄃᆞ랑홍의ᄃᆞᆯ어셔ᄆᆡ그식이
심이갓바안쵸ᄃᆡ회혀ᄐᆞᆫ식히여왈ᄂᆡ검술베ᄒᆞᆫ괴
이심여년의ᄇᆡᆨ만ᄌᆞ홍의검수이셔되갓ᄒᆞ나어펴우
비연여어제최옴독동은가위천ᄂᆞ지덩에파하매변
함향젼싱의다되엿ᄂᆞᆫ지신이될번ᄒᆞ나이다어의되

번일을셜파ᄒᆞ여일을동편의기ᄃᆡ의쳥을넘으며셩
상의복슈ᄒᆞᆫ병이잇셔경드레이수ᄒᆡᆺ거ᄂᆞᆯ변ᄒᆞᆯ
여바람이되여여덥셩을너머아홉셩의댱츌여ᄂᆞᆫ보
다ᄒᆞᆯ방울ᄒᆡᄂᆞᆫ곳과소ᄅᆡ울못여시며그셩을너머
드레가이중쟝이죵ᄒᆞ여나타의ᄒᆡ쳐소ᄅᆡᄒᆞᆫ회츅
칠ᄂᆡ오홉개슈심쟝이라바로몸을ᄉᆞᄉᆞ중쟝을넘
으ᄅᆡ되나길이냥ᄂᆞᆫ무슈초ᄅᆡ졍연ᄒᆡ거울칼을넘
혹ᄂᆞᆫ부나ᄒᆞᆨ칠ᄂᆡ중쟝의주리로쟝빠을ᄒᆡ여당ᄒᆡ
새일졉동이엇지ᄂᆞᆯ나오다시중픔을ᄎᆞᄒᆡᄅᆞᆯᄂᆞᆫ져
ᄂᆞᆫ여너본편의셔홍녕ᄒᆞᆫᄉᆞ뎡아바좌우로무수ᄒᆞᆫ셩
에비야파물내ᄒᆡᄂᆞᆫ모인빈데모인을ᄒᆡ가ᄌᆞᆫ나카ᄂᆞᆫ
심여책이오블게기ᄂᆞᆫ곱ᄒᆞᆫ바람가ᄌᆞᆫᄒᆞᆫ여이

우이싸호다가와셔내일주이졀협을소일
홀세손으로뎐숑을뻐혀잡앗시다이즘셩은당
혈길얼업더이나탁의미복한은손을발을여중
내울숙혐을기로로빙태여와셔나철묵동현
하의묵쌍현협지오나탁의방배해믄그즘의일
닌이라빈왕을쟝기어려올가츌노라하여타나
탁이중좋의두마되리을두어샹이일홈이손은방
이라남방의손이외혈그라현는산낭리잇외사
존와혈은그쇠로그합혀여삿기을나온길은온
져방이라손도남기범다코기래을쟙으며나라이
은몰을저희게는거서라홍손뫼볼일이임의일
욕저못흔엿사리왕은손쵀의자쉬초쳐변일

다시의논ᄒᆞᄂᆞ이다 이의작ᄃᆞᄒᆞ여 갑나다 차시흥ᄉᆞ
비흥ᄂᆞᆫ을보내ᄂᆞᆫ원숏기ᄂᆞᆫ왈쳡이흉ᄒᆞᆫ편을
본ᄒᆞ여보내믄셩군치못ᄒᆞ다ᄒᆞ고ᄃᆡᆨ을놀게ᄒᆞ여방비
ᄒᆞ믈더엄히ᄒᆞ게ᄒᆞᆫ후ᄆᆡᆫ왕의ᄭᅴ리의ᄃᆞᆯ년즁
ᄌᆞ을ᄒᆞ여ᄋᆡ와나라의ᄋᆞᆷ이서놀게ᄒᆞ라ᄒᆞᆫ니나이ᄒᆡ
쳘몰목흥으로가ᄒᆞ여ᄒᆞ야오니상군은잠간거ᄃᆡᄒᆞᄉᆞ
셔원쉬ᄆᆞᆺᄂᆞᆫ놀나흥낭의손을잡ᄂᆞᆫ왈낭의ᄃᆞᆷ
낙이이작ᄋᆞᆫ으로게셩군은못ᄒᆞ나결안코낭을ᄒᆞᆷ
재의보내지못ᄒᆞ여ᄃᆞ죠다흥낭이웃ᄂᆞᆫ왈ᄒᆞ편이상군
을ᄀᆞ리망ᄒᆞ여ᄒᆞ여잇ᄂᆞᆫ념녀치마ᄅᆞ소셔상군이흥늬를
셤ᄀᆡ여ᄌᆡ몽인의을소ᄅᆞ이ᄒᆞ리잇가ᄒᆞ여ᄎᆡ여나가ᄒᆡ
ᄒᆞᆯ나원쉬반신반의ᄒᆞ여왈흥낭은이탕ᄒᆞᆯ

목즁의잇셔홀일을엿셔향배을알ᄂᆞ
도냥채ᄒᆞ여엿거ᄂᆞᆯ이제냥은존젹이셩조ᄒᆞ거ᄂᆞᆯ
의지와홀노드러가리오홍냥이쇼이제왈겸슐
이라ᄒᆞᄂᆞᆫ거시젼여신으로가ᄂᆞᆫ신으로운용즁즁의
겸슐은신이부족ᄒᆞᆫ드로향비와노괴ᄒᆞ니라쳡
이빈ᄒᆞ쥬젼야ᄒᆞ나검슐을부려신을어든즉그향
ᄒᆞ니바람갓치도라온이불갓치ᄒᆞ여보드래ᄒᆞ니잘
ᄒᆞ게안니ᄒᆞ고방비ᄒᆞ여막지못ᄒᆞᆯ거슨검슐이라
엇지길이셕어ᄒᆞ며물죽히ᄒᆞᆫ심ᄒᆞ리잇ᄂᆞᆫ원쉬오른
왈로냥이쥬츙을본즉보기여나탁이ᄂᆞᆯ나여쥬향
비ᄒᆞ기을더ᄒᆞ며ᄒᆞ기ᄂᆞᆫ목산쥬의매배동쥬경의
손용우은즘셩이잇다ᄒᆞ니엇지삼가지아니ᄒᆞ리오냥

이ᄯᅢ소뎌ᄇᆡᆯ검술을ᄇᆡ왓ᄂᆞᆫ당쟉이엄스ᄂᆡ지실ᄂᆞ록
난젹봇ᄒᆡ거ᄃᆞᆫ엇지리을놀ᄂᆡ뢰오이ᄂᆞᆫ졍츙
의츅을ᄒᆡᄊᆡ나재어나탁을쉬여ᄃᆡ병비ᄭᅦᄒᆞᆫ몬
검범의신츙을보여향복ᄒᆡ게쌀으게ᄒᆡ여나ᄂᆞᆫ
을보소셔원쉬비로소낭의손을곳고친이술을
뎨여쾌ᄃᆡ니낭이술을배야셔안ᄭᅦ레뫼노ᄒᆞ며알
이술이삭지이여로라오뢰이다언ᄭᅴ와쌍검을취
ᄒᆞᆯ도쾌온이되여진배을보을니라낭이쌍검
을취ᄒᆞ고철복츙와쌍을넝을서시야장빈의빌
셕이반ᄒᆞ더니셩상의동후이쥐황을ᄂᆡ복슈만
병이칭검을쥐ᄒᆞ고굴너셧슈ᄃᆡ에ᄂᆞᆫ츙ᄂᆞᆫ금이당려
가브로려우슈작을ᄭᅵ라아홍셤을지여셤모

이다ᄉ쳐ᄃᆞ롸우와ᄀᆞ로ᄉᆞ삼살러엄ᄃᆡ여대라
홍낭이ᄒᆞᆫ줄기ᄎᆞ로레봉이쳐여분둥으로살
갓치ᄃᆞ러가바로나타의쳐소의ᄃᆞ려가나타이
곤티져뱀을먹ᄃᆞ롸우의재장을보아검주이쇄러
갓흐ᄆᆡ은축이빅축을보시ᄒᆡ더라나타여축하
의안졋더니축불이경걸붓그쳐이내정연ᄒᆞᆫ칼소리내
ᄯᅢ리우의ᄒᆡ나나타이뎌경을여흡퇴장검을집
여ᄂᆞᆫ중의ᄎᆞᄂᆡ보니아시거ᄂᆞᆯ이냥ᄃᆞ중물박거
ᄒᆞᆫ소리벽녁셜인아뎌벽중중이더ᄒᆞᆫ소오ᄂᆞᆫ에
모ᄃᆞᆫ제장이며병졸이일시의내아리차ᄃᆞ나건처
엄ᄃᆞᆫ소자방이축여ᄉ는대ᄂᆞᆫ신보니졀신의칼ᄂᆞᆫ숙이낭
검ᄃᆞᆯ여누ᄒᆡᆯᄃᆞᆫ이도ᄅᆞᆯ조줄이라나타이보ᄃᆞ쳔신이배

빌희여 졔장을 모아 샹의 왈 즉금 외국 지변이 잇
사오니 이갓치 신통ᄒᆞ믄 듯지 못ᄒᆞ엿ᄂᆡ라 이번 대셔
위 신의 작난이라 ᄒᆞ여 의논ᄒᆞ니 보ᄅᆞᆯ ᄃᆡᄒᆞ야 이ᄯᆡ 낭
원쉬 홍낭을 보ᄂᆡᆫ 후 방심치 못ᄒᆞ여 쳘봉을 바라
보아 념녀ᄒᆞ더니 홍장을 거ᄂᆞ려 ᄎᆡ봉 홍낭이 도라오거늘
원쉬 ᄃᆡ경ᄒᆞ여 ᄃᆡᄒᆞ여 곡절을 뭇ᄌᆞ니 홍낭이 ᄭᆡ여 ᄯᅡ 질ᄂᆞᆫ ᄯᅳᆺ
ᄎᆡ가 ᄌᆡ 못ᄒᆞᆯ 쥴 알ᄋᆞᆺ 오자 홍낭이 ᄒᆡᆼ검을 ᄃᆡ져
그 쳔식을 젼ᄒᆞ여 왈 병녀의 ᄃᆡ우 홍중에 드려
가 득마 되더니 게ᄒᆞ기 인비 되여 ᄌᆡ우 셩병을 도망ᄒᆞ여
왓나이다 원쉬 경왈 그ᄃᆡ 변상ᄒᆞ뎨 나엿ᄂᆞᆫ나 홍
낭이 아ᄭᅵ울 ᄭᆡ여 신움ᄒᆞ여 왈 비록 상ᄃᆞ이나
둘엿시나 ᄂᆞᆯ나ᄭᅵ다 ᄒᆞ더니 가숨이 결ᄂᆡ ᄂᆞᆫ ᄃᆞᆺ

ᄒᆞᆫ오너더 윤슬라 영왕의 내리의 달을 난ᄒᆞᆼ간을
어더야 병이나 울듯ᄒᆞ여 이다 원취 그 빌이 흉ᄒᆞ어더
온빈 줄을 ᄃᆞ이 우이 ᄒᆞᆫ 낭을 보아 빌이 연ᄃᆡ 흉
낭여 옷ᄃᆞ 흉으로 셔어 다라의 흉간을 내여 노오 내셔 안
옥외 노인술을 갈오 회일어 패임의 상ᄒᆞ리 곤ᄒᆞ면
울두어 사나 어지 강의 퇴회 흰 술리 잇ᄃᆞ 원취 그 신어 혈
검슬을 청친을 내 슬을 보오 히려 사지 이어를
엿더라 어의 흥낭에 술을 마시ᄃᆞ 흉ᄒᆞ 퇴ᄒᆞ 돈 빌을
쇠ᄃᆞ 이별 흔ᄃᆞ 왈ᄃᆞ 나 닥의 방베 혀 본 흉낭이 하 숙
되 못ᄒᆞ더니 퇴 흠은 흉ᄒᆞᆫ 빈로 젹ᄒᆞ여 흉젹을 알니
재열을 가ᄒᆞ엿더니 다시 셩쥬ᄒᆞ온 듯 깃연 줄 알니ᄃᆞ
ᄉᆞ자 방을 즈ᄎᆞ여 나 다의 ᄃᆞ려 퇴ᄒᆞ이 더ᄃᆞ로 ᄃᆞ록 잡듯 갈

쇼쾌을개ㄷ두ᄢ다리ㄷ을죽여시어즁안의나라니
눈올ㄷ안쾌거몬란을쑴쏠져라뻘거든이을본셔
와·즁준을보기뱐향복이취을가손나이다왼쉐
디회허여쥴을다가살의비여보기ㅣ라시의나라
이졍혼이오ㄷ해여쾌갖을도화보아일몰려단쾌간
자직온모야복재ᄎ몰기불의허ᄢ나와섭졀배
녕거나와이변온심상현자대저변이아나화졍도
지어ᄇ허ㄷ방배허ᄢ쳘ᄃ동잣ㄷ밤이낫잣거훌
근쾌염서ㄷ쾌와거쵝염시범보아여흉악헌리
두ᄯ대을죽이어엇지형자셥편의쾨리울더욱
의심졍하ᄂ임의ㄷ쾌와손랑은쌍해지이오ㄷ사
자방빈상서갈의죽이나칼훈쟉이낭ᄂ

호나이엇각더번이어여뢰쏘오ᄂᆞᆫ의눈이블ᄂᆞ
되여죄ᄅᆞᆯ중죽을탄곳의모ᄒᆞᄂᆞ두려오물이거져
못ᄒᆞ여더문직희던져병원슈의한장쥴을빗최
니형상의ᄭᅥ려ᄒᆞᆯ거시밧치ᄂᆞ다호거ᄉᆞᆯ비여보니비
단의두어쥴글이니되엿시되
뎌병원슈뒤ᄅᆞᆯ여ᄒᆞ여날슈ᄂᆞᆫ되여펼복중
을쉬치지아녀ᄒᆞᄂᆞᆫ장츙의누어일디ᄒᆞ존을가
져왓더니오랑캐물건이라쇼ᄅᆞᆯ대엉거ᄅᆞᆯ환ᄋᆞᆼ
줄나니비의ᄃᆡᆨ깐왕은동학을앱슈ᄒᆞ여엿보
물방비ᄒᆞ라ᄒᆞᄂᆞᆫ죄ᄅᆞᆯ더ᄂᆞᆫ슈단으로ᄂᆞ다서ᄒᆞ펼
리시엿노라ᄒᆞ엿더라
더시반왕이글을보ᄃᆞ다시산호ᄒᆞᆫ을보네이곳가
젓쫀ᄅᆞᆯ재죵ᄅᆞᆯ되여써전거ᄉᆞᆯ모ᄅᆞᄃᆞ가게뎌ᄅᆞᆯ밧

셩현다ᄒᆞ시과ᄒᆞ졍은이라ᄯᅩ뢰동쳔세졀
지ᄀᆞ로무ᄃᆞᆫ이엘치모주거각ᄒᆡᄀᆞ뎨ᄒᆞᆫ엿ᄃᆡ싱여
졀ᄉᆈ화ᄒᆞᆫ번도이ᄃᆡ시엄ᄉᆞ니이엇지ᄒᆞ날ᄉᆞᆫ지
되옵이죄ᄇᆞᆫ일주지각ᄒᆡ다ᄂᆞᆫ신병을보ᄒᆞᆫ뎨
못ᄒᆞᄀᆞᄒᆞ날을거ᄉᆞᆯ니ᄅᆞ여ᄃᆡ번외ᄃᆡᄒᆞᆫ몸격
거냥원ᄉᆈ실회죄이여ᄒᆞᆯᄀᆞ주관에셩활ᄒᆞᆯ니에
는ᄉᆞᆫ로감복게ᄒᆞᆯ니라이졔ᄒᆞᆫ북지에ᄇᆞᆫ에는
배온ᄒᆞ는작시라ᄒᆞᄒᆞᆯ벼간다을보내여삼ᄒᆡᆨ배ᄉᆞᆨ
로ᄅᆞᆼ은죄ᄒᆞ는ᄌᆞ당으로게내죄을촉ᄒᆞ변ᄉᆞ라셔
쳔외와셩덕을보로ᄂᆞᆫ불인되ᄀᆞ죽어내리엉ᄒᆞᆫ쥐
신뢰불변치못ᄒᆞ령이어리ᄒᆞᆫ섬치양ᄒᆡ로빗
당에금일노ᄃᆞᆨ흉은여부치ᄒᆞᆫ셩병을ᄒᆞᆯ지ᄋᆞᆼ에

퇴타ᄒᆡ드록시랑번을썽상의쏫ᄂᆞᆫ반왕이벽역의소
대로퇴ᄒᆞᆫ거환속ᄒᆡ의제장을거ᄂᆞ려인ᄋᆞᆫ을묵ᄀᆡ
의뇌여쌍진의투항ᄒᆞ니낭원쉬졔장을거ᄂᆞ려
전체을베ᄒᆡᄃᆞ원쉬홍로금갑의ᄃᆡ우젼을오ᄒᆞ
외빗기촌ᄃᆞ정ᄃᆡ의울으ᄂᆡ옥모명롱은좌우을경
동ᄒᆞ거놀좌현의좌순ᄭᅡ황농장군초우경다우
현의우순ᄭᅡ벽호장군홍훈탈다전복셜본너
철롱다좌익장군ᄭᅡ달동로돈쳔여원장서동
서로갈나셔ᄂᆡ위롱이당ᄃᆞ회ᄃᆞ가진쳔의젼ᄂᆞᆫᄒᆡᆼ과
치일령을가뢰오ᄂᆞᆫ실쳔이관동ᄒᆞᆫ이장부의괴셔
이의셔ᄃᆡ오래오ᄂᆞᆫ반왕이변박여회의술횡로북ᄂᆞᆫ
여광ᄒᆞ의ᄃᆞ두ᄒᆞ니철목동롱모ᄅᆞᆫ반장이

독주ᄅᆞᆯ베셔일췌이장쳔의술어북북편대
원쥐일녀ᄂᆞᆯ쳔변을역ᄒᆞ여번방을온죵ᄒᆞ여
황병을밧ᄌᆞ와현ᄒᆞ여념순의빗기신바의역으로
황북밧ᄌᆞᆫ인의됴교화그려ᄒᆞ믄셩현ᄌᆞ의호션지
덕을보이ᄃᆞ려ᄒᆡ이쥐이웨남옹웅빈에잇셔ᄢᅵ진
현ᄢᅡ옹이잇실진ᄃᆡ다시ᄃᆞ라가쥐옹을졀외보라나
탁이내리울조아왈나탁이흠일가지ᄉᆞᆫ라이셔문우
오로황상의쳔지간ᄒᆞᆫ졍덕이오원슈의하히나ᄂᆞᆫ
호ᄉᆡᆼ리덕이다나탁이비록만맥리방의셩장ᄒᆞ나
노상쳘쳥의흠숑ᄒᆞᆫ바옹이잇서나히울을내ᄃᆞ와
홀발부년녁의쳠네ᄒᆞ여셩여리원슈의대덕
을감동쥐여ᄑᆡ잇가나탁이ᄒᆞᆫ여졀덕ᄒᆞ여인외
울모조ᄃᆡ별이ᄂᆞᆫ듯ᄒᆞ여ᄆᆞᄋᆞᆷ조부일ᄭᅧ죡의나여오ᄃᆡ

애터덜을셰여러울때ᄃ려하나남을지라다사이
십이잇시며가원쉬훈년이고민지술줄너좌의울
니ᄃ소왈셩편리신셩영복하소ᄃ티지네울대명으로
다스리시배인의초쇼화하오순로목금슈화도해되
인평하여만방의덩하시니지령이편변을평하게하
해태온여쳔거라타평연의여초신바타물이업셔
도로쳐나지타줄나이체대왕이하물을쉬지시어
이순대왕의복이타왕화을감복하소와움으로향
복츌신쥭황상계쥭말흐여운대해비잇실가흉
이다나탁이ᄃ목왈나탁은임의죽은목홍이라비
쥭티일이로ᄃ바다이벌운여거온남터시물바
다터잇ᄃ하대라나의술을나와두어솔베져소빈
만왕을근충의두ᄃ이되운편ᄃ울울녀그게

호ᄅᆞᆫ뫼ᄃᆞ방붓채박쳔을안누ᄒᆞᄃᆞ쳡쇄을
쳔련의축분헐서홍낭이축연이원숙거ᄀᆞᆺ을
일공일가개ᄉᆞ라잇시믄을소재의회폴리엿어
와싱ᄉᆞ의엇지그덕을니르리잇가이제사화이샤
물소래거ᄃᆞ그뢰회나여야왼쇄옷ᄃᆞ희화ᄒᆞ나
와화어정둥ᄌᆞ로첩쇄을축어상졍께ᄒᆞ여와
션씨의만세황예낭원축을졀견의보게시ᄂᆞᆫ
심ᄒᆞᆫ시ᄃᆡ어첩쇄용쳔의오ᄅᆞᆫ니편서ᄃᆡ회ᄒᆞᄉᆞ황
운낭각고울로라보ᄉᆞ갈이ᄉᆞ대황ᄌᆞ의잔나겨불
부리저ᄂᆞᆫ이됭겸파휘별나그리헤여ᄒᆞᆫᄒᆞ분오희페
쳐아져붓희엇더강쳑을ᄒᆞᆼ이화펵ᄒᆞ엿시니셩의
후쳑ᄒᆞᆫ난이온간쳔리셔하ᄒᆞ시ᄃᆞᄅᆞᆯ을블보

혀네 영당의 체직이 인박여 부탁을 쳐결을
여 조리 방울 첨범ᄒᆞᆫ 소호보살이란 계정을 어
더 왕비을 삼아 홍도국 왕빨희 만 부당계 옷이
잇ᄂᆞᆫ 소보살의 온술이 비범ᄒᆞ여 채번싹 화체번
치혀ᄒᆞᆫ니 쟉쎄 강형ᄒᆞ여 불가당이라 천변을 보
발ᄒᆞᆫ 순박오 소쉬ᄒᆞᆯᄂᆞᆫ 상쉬라 상이 대전ᄒᆞᆫ 순쾅을
낭쟉노올 갓기이오라 즁손의 혼ᄒᆞ신 뒤 횡약니 ᄒᆞ해
혜쟉쎄 강형ᄒᆞᆯ다 ᄒᆞ옵니 난쾅국의 래ᄂᆞᆫ 쉬ᄒᆡ옵ᄉᆞ
오시얼 반을 난화 홍ᄒᆞᆫ 딸이 져쉬 선조을 귀불ᄒᆞ
다혀오니 밧거 홍도국을 재라ᄒᆞᆫ 서ᄂᆞᆫ 청국은 여의
쳥즁헤 엿서니 더군을 오뤼뻔벙의ᄂᆞᆫ 그리 ᄒᆞ결 쳐라
깨ᄂᆞᆯ니 회ᄂᆞᆫ 혀라ᄒᆞᆫ 소셔이ᄂᆞᆫ 가뇌 쫏ᄎᆞᆯ 홍ᄒᆞᆫ 딸의

져리 잇다 ᄒᆞ나 그 쳔심을 모로ᄂᆞᆫ 뎡이 ᄒᆡ 궁임을 잇기
리 못ᄒᆡ ᄒᆡ니 이다 ᄐᆡᆼ 가니 일흔 ᄒᆞᆫ ᄃᆞᆯ을 보재ᄂᆞᆫ 못
ᄒᆞ엿시나 변방의 ᄇᆡᆨᄒᆡᆨᄒᆞᆫ ᄒᆞᆫ 북호난시을 당ᄒᆞ여 져
조을 나타내여 베살을 주ᄒᆡᄂᆞᆫ 쟝쇄ᄒᆞ라 ᄒᆡᄒᆞᆯ 조ᄒᆡ을
사ᄌᆞ옹ᄒᆞᆯ 시변 그진 심을 이ᄒᆡ타ᄒᆡ 상얼가 ᄒᆞ나시아
상이 되올 ᄒᆞᆫ시다 시의 ᄂᆡᆼ부의셔 아ᄌᆞᆫ을 쳔젼의로
ᄂᆡ안 ᄒᆞᆼ아 ᄌᆞᆫ생ᄒᆞᆫ 더ᄂᆞ 총쳔 ᄒᆞᆼ군ᄒᆞᄂᆞᆫ 가ᄊᆡ 이ᄒᆞᄂᆞ 궁의
부뷔ᄒᆡ 불ᄌᆞ승ᄒᆞᆫ 여셔ᄌᆞᆫ을 불셔 고가 온ᄃᆡ ᄌᆡᆨ게
분쳔셔ᄌᆞᆫ이 잇셔울 ᄉᆞᆫᄎᆡ ᄌᆞ하라 ᄒᆞᆫ 엿시니 ᄎᆡ을
ᄌᆞᆨ어 보게 ᄒᆞᆯ나 ᄉᆞᄎᆡ ᄇᆞᆫ내 밧거ᄉᆡ ᄌᆞᆫ거야 게셔 ᄉᆞᆫ왕
북이 되아 ᄒᆞ여 쳠ᄉᆞ의 ᄌᆞ타와 ᄒᆡ열 ᄒᆞᆯ나 여본 ᄃᆞᆨ
쳔안의 외 홍낭의 ᄃᆞᆯᄌᆡᆨ이 ᄑᆞ ᄌᆞᆫ뎡 ᄒᆞᆫ ᄒᆡᄒᆞ며